



SEOUL NATIONAL UNIVERSITY

U.S. ALUMNI NEWS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제256호 | 2015년 8월

www.snuuaa.org

news@snuuaa.org

SNU Alumni Association USA | 550 Township Line Rd, Suite 100, Blue Bell, PA 19422 USA | Tel: 484-344-5500 Fax: 484-342-0222 | 발행인: 손재옥 편집인: 김정현



대한민국의 광복 70년, 남과 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되는 2015년을 맞아 세계 각지의 네티즌들이 보내준 한반도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KBS WORLD에서 소개하고 있다.
(KBS 사이트 : <http://world.kbs.co.kr/special/kdivision/korean/international/message.htm>)

‘재미 한국학교 교사 600명 한자리에’ 역사·문화 교육 방안 모색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뉴저지 주에서 연례행사 개최



재미 한국학교 협의회(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NAKS) 33회 학술대회와 정기총회가 New Jersey Teaneck Marriott Hotel에서 7월 16-18일에 걸쳐 열렸다.

‘미래를 향한 창의적인 차세대 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NAKS 산하 14개 지역협회의 600여명의 한국학교 교사가 참석하였다. 개회식에서 김기환 뉴욕총영사(법대 77)가 박근혜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였고, 재외동포재단 조규형 이사장이 축사를 하였다. 이어 하형록 팀하스 회장(본 미주총동창회 손재옥회장 부군)의 기조강연(Keynote Speech)이 있었다. 최미영 NAKS 총회장은 “한국 학교 교사들도 이제 1세에서 1.5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공부하는 학생들도 2세대를

넘어 3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 했다.

일정으로 한국 역사와 문화 특강, SAT 한국어 특강, 독후감 쓰기 등 집중 연수 강의가 있었고, 모교 동문이 신 배재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인 지현숙 동문의 한국학교 교수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평가론 강의가 있었다. 협의회 4대 이사장을 역임한 허병렬 동문(사대 42)과 10대 이사장을 역임한 이내원 동문(사대 58), 콜로라도 지역협의회 정화용 동문(사대 61) 등 반갑게 인사한 동문들 이외에도 많은 동문들이 참석했을 것으로 간주된다.

2016년 34회 학술대회는 콜로라도 덴버에서 열릴 예정이고, 이번 33회 학술대회 기조강연 동영상과 학술자료는 www.naks.org에서 볼 수 있다.
(허유선(가정대 83) 편집위원)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95

Inside

본 회보에 게재된 기고문은 회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회보에 게재된 취재기사 및 동문글은 본 회보가 Copy Right을 갖습니다.

- | | | | |
|-------|----------------------------------|-------|----------------------|
| 1 | 광복 70년: 세계인의 목소리 / 재미한국학교 | 21 | 영시해설·감상 / 동문신간 / 책소개 |
| 2-3 | 광복 70년: 세대를 건너 / 논설 | 22 | 수필: 내 마음의 명왕성 / 10cm |
| 4-5 | 광복 70년: 브레인네트웍-한국 이민사회 | 23 | 여행기: 산티아고 / 싱가포르 |
| 6 | 광복 70년: 헌시(獻詩) / 서울대 역사 | 24 | 공트: 딸과 공여사 |
| 7-11 | 지부소식: 남·북·가주·뉴욕/시카고/PA/샌디에고 | 25 | 부고: 삼가 명복을 빕니다 |
| 11-14 | 모교소식: 450억 기부한 정석규 동문 등 | 26 | 인터뷰: IM Foundation |
| 15 | 과학: 세계 최고 로봇일꾼 / 명소탐방 PA | 27 | 회비 / 후원금 내신 동문 명단 |
| 16-17 | My Story & Your History / 독자의 광장 | 28-29 | 미주 동문 업소록 |
| 18 | 서울대생 유편 편집기 / 착한 배달 앱 등 | 29 | 원고 모집합니다 / 편집후기 |
| 19 | 광복 70년: 한국학 연구의 현주소 | 30 | 서울대 미주동창회 조직과 지부 |
| 20 | 재학생 글들 | 31-32 | 광고 |

광복 70년

어머니의 광복 70년



김성근(법대 78)
중무 텍사스지부 회장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오셔서 한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시고 사진 어머니가 이제 90을 바라보고 계신다. 항상 건강하실 줄로만 생각하였는데 올해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이제는 걸으실 때도 지팡이를 짚으시고 다른 쪽은 부축을 받으시게 되었다. 우리가 미국에서 처음 장만한 집에도 올해에는 한번 다녀가시겠다고 작년에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가서 봐야 할 것 같다. 어머니는 고향이신 평안북도 정주에서 해방을 맞으셨고 3년여 후에 공산주의 정권이 농촌에서부터 점차 도시로 영향력을 확대하자 남한과 무역을 하시며 자주 남한을 왕래하신 아버지와 함께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월남하셨다.

나도 이제 미국에서 8년여. 새로운 땅에서 소수민족으로 살며 정착하는 과정을 겪으며 남한에서 친척이나 친구

가 거의 없이 살아오셔야 했던 두 분의 고초를 생각해 보게 된다. 두 분도 남산 아래 해방촌에서 시작하여 안해본 장사/사업이 없을 정도로 여러가지 일을 하셨다. 미군부대에서 몰래 나온 물건을 가져다 파시기도 하셨고 6.25가 나자 대구로 피난가셔서 거기에서 수건공장을 하셨는데 전라도가 섬유산업의 불모지라 기회가 되겠다 싶어 내가 태어난지 30여일 만에 전라남도 광주로 기반을 옮기셔서 나는 그곳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살다가 대학과 직장으로 서울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런데 내가 중학교 1학년때 아버지께서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위의 몇 회사와 합자를 하였는데 그 회사가 은행 빚에 넘어가자, 어머니는 그곳에서 전에 데리고 있던 직원들과 함께 미상을 하며 우리 네 자녀를 모두 대학을 졸업시키고 결혼도 시키시며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살아오신 것이다.

나에게 일제로부터 해방 그리고 이제 70주년은 크게 실감되지는 않는다. 다만 홀로 되신 어머니께서 환갑 때에 북한에 두고 온 고향과 부모 형제들을 그리워하는 노래를 부르시며 울먹이실 때, 나라를 잃었고 또 해방은 되었지만 두개로 갈라진 나라로 살 수 밖에 없는 슬픔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어머니께는 항상 커다란 슬픔이었음을 느끼게 되었다. 어머니는 자주 악몽을 꾸시기도 하셨고 어떻게든 꿈에서 다투기도 하셨다. 그래서 내가 미국에 3년간 공부하러 와 우리 아이들을 키워주시며 함께 살 때 그 소리에 놀라 자

주 어머니를 가서 깨우곤 하였다. 평소엔 풀 수 없었던 여러가지 것들을 꿈에서 풀기도 하고 때론 물리기도 하셨던 것 같다.

아버지는 4남1녀중 막내셨는데 오직 아버지 한 분만 남한에 내려오셨고 어머니는 8남매 중에 두 오빠와 남동생이 함께 왔는데 남동생은 6.25때 서울에서 북한군에 잡혀가 생사를 알지 못하였고 작은 오빠는 미국으로 가셔서 큰 오빠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는데 서울에 사셨고 우리는 광주에 살아서 친척간에 왕래도 자주 할 수 없이 외롭게 사시게 되셨다. 그 것도 이제 고3, 중3, 중1, 초등학교 5학년 인 네 자녀를 데리고 친척도 없는 타향에서 앞길을 헤쳐나오셔야 했던 어머니의 고초를 내가 두 자녀를 키워보고서야 조금씩 더 느끼곤 한다. 어머니가 그 당시 얼마나 막막하셨고 힘드셨을까.

큰 오빠이신 나의 큰 외삼촌과 함께 남북 이산가족상봉 신청을 하였지만 늘 차례가 돌아오지 않았었는데 어머니께서 아시는 분을 통해 북한에 사는 형제,자매들과 연락이 되어 큰 오빠와 함께 중국의 연변에서 막내 여동생을 헤어지진 50여 년만에 만나게 되셨다. 막내 여동생이 아주 어렸을 때 헤어져서 그 모습이 잘 기억나지도 않고 어머니 가족들은 키가 꽤 크신데 동생이 키도 작은 편이라 처음엔 긴가 민가도 하고 서먹 서먹하였는데 그렇게 그리워하던 당신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의 소식을 들으며 함께 안고 많이 우셨다고 한다. 그래서 죽음로만 알았던 남한에서 함께 살다 6.25때 북한군에 잡혀간 남동생이 북한에 돌아

와 부모님께 효도를 많이 하였고 러시아에 나가서 돈도 벌어서 북한에서는 꽤 안정된 삶을 살았다는 소식도 접하게 되셨다. 이렇게 딱 한번이었지만 그 고향과 가족 소식은 어머니께 커다란 위로가 되셨던 것 같다.

어머니께서 막내동생을 통해 북한 가족들과 고향 소식을 들으신지도 10년이 훌쩍 넘었다. 부모 형제와 고향을 떠나 그리워하며 사진 67년간의 세월 동안 고향에는 한번도 가보지 못하시고 중국에서 막내동생을 딱 한번 만나 본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소식도 들어보신 적이 없다. 어머니께서 금강산에 갔다 오시긴 했지만 늘 고향에 가서 형제 자매들을 만나보시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셨고 가실 때는 내가 어머니 모시고 그 소원을 풀어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의 건강이 저러시니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나마 내가 제대로 풀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도록 **반쪽의 광복이 아닌 참다운 광복**이 어서 와서 그러운 가족들을 만나며 70여년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를 나눌 그래서 참으로 행복해 하실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어머니께 늘 받기만 하고 돌려드리지 못한 나에게는 그 사랑에 보답할 참으로 좋은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머니 지금 아픈신 것 뭇쳐 일어나시고 저와 함께 고향에 갈 그날까지 건강하십시오.

reen identity allowed among my non-Korean peers; I remember proudly brandishing my cool Korean pencils and stationary in class, intentionally turning them so that my classmates could see the beautiful Korean 한글 and showing off my (limited) Korean on the playground. Wading through the awkward and murky high school years would later teach me that being different was ok, but being TOO different would be socially sanctioned, and my interest in Korea slowly waned in favor of peer and social pressures and the pursuit of popularity.

On August 15, Koreans all over the world will celebrate the 70th anniversary of their National Liberation Day, commemorating their freedom from Japanese rule. To my shame, I didn't know much else about this holiday, having celebrated America's Independence Day all throughout my life but rarely hearing about this momentous event in Korea's history. Today people are even arguing that the whales are now "courting the shrimp," due to South Korea's role as a major economic player in today's global economy and its international influence as an exporter of goods (cars, electronics), pop culture, food, media (film and dramas), and music(k-pop, Psy).

Since my childhood, Korea has been experiencing a growing international presence, and I am coming across more people who are familiar with Korean music, dramas, kimchi, and Korean BBQ, even in Germany, where I

currently live. I want so badly for them to know and understand this amazing country, this powerful and passionate and tenacious people who rose up from the ashes of war, constantly threatened to be swallowed up by the whales around them but never drowned. They are a people that seem to embody the words of Apostle Paul in his letter to the Corinthians, **"We are hard pressed on every side, but not crushed; perplexed, but not in despair; persecuted, but not abandoned; struck down, but not destroyed"** (2 Corinthians 4:8-9).

As I reflected on the 70th anniversary of 광복절, a number of various thoughts came to mind. I couldn't help but be reminded of my own distance and inability to provide an insider's insight on the sorrows and triumphs of Korea's tumultuous history. I thought about my own generation, which was able to reap the benefits of the hardships that the generations before us endured, so that we would not have to suffer the way our parents and grandparents did. As a child of immigrants, my own identification to the country of my parents was threatened to be swallowed up or diluted by the land I grew up in, oceans away from the place my parents called home. Yet once again, I felt a familiar stir in my heart, **a connection and love for the country which runs through my veins and undeniably shaped my sense of self.**

2014년은 그런 목마름이 유달리 애타는 한해였다. 특히 4월 16일의 세월호 침몰 사고가 국가적 사건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지를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 깨달은 것은 또 하나 있다. 국민들이 애통하고 분노하며 변화를 갈망한다고 해서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다. 세월호사건을 겪었다고 일대 전환이 당장 이루어질 사회라면 애당초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테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사회라면 쉽게 전환하고 개조될 사회일 수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끔찍한 군부대 사건들이 잇따랐고 군과 정부는 '우리는 감이니까 어떻게냐 말해도 상관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그럴

(수잔리(32)는 故홍종환(몰리 75)교수와 이성숙(가정 74)동문의 장녀입니다.)

광복 70년: 논설



백낙청
계간「창작과비평」편집인
서울대 명예교수

“어둡고 괴로워라 밤이 길더니 / 삼천리이 강산에 먼동이 났다.”

8·15 직후 부르던 「독립행진곡」의 첫머리다. 돌이켜보면 일본의 식민지통치 35년은 분단 70년의 절반에 불과했지만, 어둡고 괴롭고 치욕스러운 남의 나라 종살이었기에 해방의 환희와 감격이 그만큼 벅찼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오늘도 이 노래가 가슴을 울리는 것은 환희의 기억이 생생해서라기보다 어둡고 괴로운 세월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아~아, 자유의, 자유의 종이 울리고 해방의, 해방의 깃발 날리는 날에 대한 목마름이 간절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렇더라도 1945년 8월 15일은 확실히 빛을 되찾은 광복(光復)이었다. 이를 부인하는 것은 비록 분단시대라 해도 자기나라 이름을 걸고 운영되는 역사를 명실상부한 식민지 역사와 혼동하는 부당한 역사인식이고, 일제통치를 끝내기 위해 헌신했던 선열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유달리 어두웠던 2014년

다른 한편 광복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강제된 어둡고 괴로운 날들은 그것대로 적시해야 한다. 6.25을 겪으며 생긴 휴전선이 60년 넘게 존속되어 분단체제라 부름직한 현실이 굳어졌다. 내부 기록 권세력과 외부 강대국들의 '감질'에 취약한 사회가 남북 모두에 자리잡았고, 주민들 스스로도 '감'이 되고 싶은 욕망과 기회만 닿으면 '감질'을 마다않는 행태가 널리 퍼졌다. 매사를 '감을관계'로 보는 습성마저 내면화된 듯하다. 이제 70년 전과는 다른 차원의, 훨씬 다면적인 해방이 절실했던 시점이다.

2014년은 그런 목마름이 유달리 애타는 한해였다. 특히 4월 16일의 세월호 침몰 사고가 국가적 사건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지를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 깨달은 것은 또 하나 있다. 국민들이 애통하고 분노하며 변화를 갈망한다고 해서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다. 세월호사건을 겪었다고 일대 전환이 당장 이루어질 사회라면 애당초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테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사회라면 쉽게 전환하고 개조될 사회일 수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끔찍한 군부대 사건들이 잇따랐고 군과 정부는 '우리는 감이니까 어떻게냐 말해도 상관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그럴

광복 70주년, 다시 해방의 꿈을

다고 권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진정한 강자의 모습을 위정자들이 보여준 것도 아니다. '비선실세'와 '문고리 3인방'의 국정농단 논란이 표상하듯이 정권의 난맥상은 실로 엇기적 수준이었다.

수많은 자살자가 세상을 뒀고 노동현장의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여성들은 또다른 성격의 안전사고에 항시 노출되어 마음놓고 길가리를 걸어도 될 수도 없었다. 무엇보다 한창 꿈에 부풀 나이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도 없고 일할 전망도 막막한 상태로 무기력해지거나, 젊은 기운을 '일베' 식으로 엉뚱하게 발산하기도 했다. 과거보다 나아진 면이 있다면 '4대강사업' 같은 초대형 국토과

의 꿈

현재도 현재지만, 체제말기적 혼란의 핵심에는 87년 6월항쟁 최대 성과인 직선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의 위기가 있다. 2012년 대선은 국정원과 군부의 선거개입 같은 부정사태가 있긴 했지만, 87년 민주헌법의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선출되어 취임하였고 그 합헌성을 야당이나 국민 대다수가 부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87년체제 최고·최강의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거의 모든 여타 헌법기관의 권위와 권능을 무시하는 행태를 견지하고 있는데다가 그 때문에 정권의 통치력이 강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대통령 권력 자체의 급속한 무기력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어둡고 괴롭고 치욕스러운 남의 나라 종살이

였기에 해방의 환희와 감격이 그만큼 벅찼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오늘...

과 작업이 없었다는 것인데, 이 또한 국고가 바닥나고 집권자가 자신의 뚜렷한 국정목표를 못 가졌다든 현실의 다른 일면이었을 뿐, 환경의식과 준법정신의 부재가 지난 정부와 전혀 달라진 바 없음은 부실하고 부정확한 4대강사업 조사보고에서도 확인된다.

통합진보당 해산, 정권의 꽃놀이패인가?

대선 2주년이 되는 12월 19일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정당 강제해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마저 벌어지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죽음을 선포하는 목소리가 드높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바로 87년 민주화의 값진 열매인 헌법재판소가 "민주적 법치주의 원리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헌법을 빈껍데기로 만들 수 있는 위험마저도 감수할 수 있다는 '무모'하고도 '비겁'한 결정을 '무책임'하게 내려 버렸"기(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진보당 해산 결정문 살펴보니」, 한겨레 2014.12.22, 8면) 때문이다.

한결 원대하고 복잡해진 시대의 과제를 의식할수록

당면의 짙은 어둠부터 걷어냈으면 하는

우리의 목마름이 더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파시즘의 복귀라고 단정한다든가 반대로 통진당 옹호가 될까 두려워 미온적인 비판에 그치는 것은 정권의 꽃놀이패에 걸려드는 일이다. 체념하거나 이제 물리적 투쟁만 남았다고 단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태 또한 집권층으로서는 나쁘지 않다. 대중의 체념은 그들이 바라는 바이며, 물리적 투쟁이 성가시긴 해도 공권력이나 '재건 서북청년단' 등의 물리적 동원에서는 자신의 우세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말기국면의 핵심적 위기와 새로운 해방

논의를 벌이자는 건 물론 아니다. 우리 삶이 왜 이렇게 괴롭고 답답한지를 올바르게 알아서 제대로 대응하려면 한층 체계적인 인식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사회체제는 사람이 만든 것이기에 사람이 바꿀 수 있다고들 하지만, 어떻게 만들 어졌는지를 알아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는 희망이 가능해진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둡고 괴로움이 한반도의 분단과 얼마나 일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분단체제론은 한갓 이론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일 수 있

다. 물론 만악의 근원이 분단이라는 단순 논리라면 전혀 가당치 않은 소리며, 오히려 통일이 안되면 아무것도 이를 수 없다는 절망의 메시지가 될 터이다. 그러나 매사를 신자유주의 탓으로 돌리고 이 범세계적인 대세와 싸우려고만 다그치는 것도 아득하고 절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신자유주의와 낡은 군국주의 등 여러 국내외적 요인이 한반도 특유의 분단현실을 매개로 우리 삶을 옥죄는 실상을 정확히 짚어낼 때만 그 명예를 벗어던질 길이 보이게 된다.

더구나 분단체제의 작동이 시기마다 다르다는 점에 유의함으로써 그때그때의 단기적 과제와 분단시대를 관통하는 과제, 나아가 분단시대 이후까지 내다보는 세계사적 과제를 식별하고 이들 사이에 상충효과를 낼 수 있다. 지금은 87년체제의 말기국면을 청산하는 일이 우선 급하다. 다만 어려운 점은, 2016년과 17년의 선거가 이 단기적 과제의 관건일 수밖에 없지만 선거중독증에 걸려 적용 없이 승리만 쟁기려는 어리석음을 다시 범해서는 안되며, 반대로 야당이 하는 꼴을 보니 선거승리는 아예 물 건너갔다고 스스로 패배주의에 젖어들어서도 곤란하다는 것이다.

분단을 만악의 근원으로 볼 일은 아니라고 앞서 말했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온갖 '감질'과 '감을관계'는 분단 안된 대다수의 나라들에서도 만날 수 있는 현상이다. 빈부격차, 환경파괴, 성차별, 폭력문화 등이 모두 현존 세계체제에 공통된 문제들이다. 이걸 싸잡아서 신자유주의로 단순화하며, 분단체제의 작용을 빼놓은 채 마치 한국인들이 유달리 못나서, 또는 위정자가 유달리 사악해서 나라가 이토록 엉망이라는 듯이 생각하지 말자는 것이지, 분단이 극복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을 장기적 문제들을 인식하고 그 극복노력을 각 분야에서 지금까지 차분히 진행할 필요성은 그것대로 절실하다.

이런 다면적인 해방의 과제를 의식할 때 「독립행진곡」 제3절의 “유구한 오천년 조국의 역사 / 앞으로 억만년이 더욱 빛나리”라는 첫 대목은 확실히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아아, 청춘의, 청춘의 피가 끓는다”는 결말도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피 끓는 청춘을 만나기도 한결 어려워진 지금은 실감이 덜하다. 그러나 당시의 희망찬 열정은 여전히 감동적이다. 실제로 달라진 세월과 한결 원대하고 복잡해진 시대의 과제를 의식할수록 당면의 짙은 어둠부터 걷어냈으면 하는 우리의 목마름이 더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광복 70주년을 맞는 작금, 다시 해방을 꿈꾸는 피끓는 청춘을 많이 만나고 싶고 남녀노소가 해방을 위한 적국의 길에 ‘발맞추어 함께 나가자’고 노래하고 싶다.

*주: 이 글은 창비주간논평에 게재된 글로 본 편집위원회에서 일부 편집되었음을 밝힙니다. 원본은 <http://weekly.changbi.com/?p=5818&cat=5> 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한인 이민 역사로 본 미국 속의 한인사회

SNU Brain Network Symposium, Philadelphia, 6/19/2015



유익영(사회 56)
Professor Emeritus,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A

1. 한인 이민역사의 개요

한국정부의 집계에 의하면 해외동포는 모두 7백만명 이 넘고 있다(2013년 현재.) 남한인구의 약 14퍼센트에 해당되는 숫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이 중 2,091,000명이 미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니 이는 해외한인의 30%를 차지하는 숫자다.

한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한 역사는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겠다.

첫번째 시기는 일본의 동아시아 공략이 시작된 1870년 대부터 강제병합이 발생한 1910년까지다. 이 시기에는 농민 노동자들이 식민세력의 수탈과 절대빈곤에 쫓겨 중국, 연해주, 하와이, 멕시코로 이주하였다. 1903-05년 한인 노동자 이민이 하와이에 도착하기 이전에 벌써 유학생, 상인 등168명의 한인이 미국에 와 있었다. 1884년부터 1910년 사이에 미국으로 건너온 한인 유학생 수는 60-7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서재필, 안창호, 이승만과 같은 한국개화의 초석을 다지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선각자들이 있다.

두번째 시기는 1910-45의 일제강점기다. 1910년부터 1925년 사이에 951명의 한인여성이 하와이로 시집을 왔고, 115명이 미주 본토로 왔다. 이들을 사진신부 (picture bride) 라 부른다. 이들 외에도 6백명 가량의 상인, 정치난민, 유학생들이 1910-45 사이에 미국에 도착했다. 이중에는 일본여권을 가지고 미국에 도착한 150명 가량의 유학생들도 있었다. 하와이와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초기 한인사회는 자유민주주의 신봉자 이승만 중심의 동지회, 이상촌 사회주의 신봉자 안창호 중심의 국민회, 그리고 일부 신도 유학생 중심의 인민민주주의 (조선인민혁명당) 간에 이념적 갈등이 있었으나, 잃어버린 조국의 독립을 찾고자 하는 공동목표로 함께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미주 내의 한인 수 Korean Population in the United States : 1910-1940	
1910	5,008
1920	6,174
1930	8,332
1940	8,568
Source: Decennial Censuses	

세번째 시기는 한국전쟁 이후의 이민(1950-1965)이

된다. 1950-53년 한국전쟁 이후부터 1965년 사이에 미국에 온 한인들은 전쟁고아 6천3백명, 미군과 결혼한 여성 6천 5백명, 유학생, 연구원, 간호사, 의사 등 6천여명 등이다. 유학생과 연구원들 중 상당 수가 공부와 훈련을 마치고 미국에 정착하였다.

네번째 시기는 1965년 이후의 미주 이민이 된다. 한국 정부는 1962년에 처음으로 집단이민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브라질 정부와의 교섭으로 103명의 농업 이민자들이 1963년 첫 출발하였다. 이어서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볼리비아 등으로 농장개간 명분의 이민을 갔다. 이들 중 미국으로 재이민한 사람들이 많았고, 이들은 남미에서 모은 재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1970년대의 LA 코리아타운 건설에, 그리고 1980년대에는 자바시장 진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1963년 12월 한국 광부들의 서독 석탄광산으로의 취업 프로젝트가 한국과 독일간에 체결되었고, 이 협약으로 약 8,000명의 한국 광부들이 독일로 갔다. 이어서 1970년부터 7년간 약 10,000명의 한국 간호사들이 독일로 갔다. 1963년과 1977년 사이에 독일로 이주한 18,000명의 한국 광부와 간호사 중 약 반 정도가 독일에 정착했고, 나머지 중 상당수가 미국과 캐나다로 이주하였다.

미국 이민법이 1965년 대폭 개정되어 문호가 활짝 열리면서 한국인의 가족이민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가족도가 붙어 진행된 한인 이민은 1987년 3만8천명에 달한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8년에는 1만2천까지 줄었다. 1998년 IMF 경제수난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 이후 1년에 약 2만에서 2만5천의 한인 이 공식 이민자로 미국에 정착하고 있다. 2013년에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정착한 한인의 수는 모두 2만3천이다.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미국에 이민 온 한인의 수는 공식적으로 1백9만에 이른다.

영주권 취득한 한인 수 Korean Obtaining Legal Permanent Resident Status, 1940-2013	
Year	Number
1940 to 1949	83
1950 to 1959	4,845
1960 to 1969	27,048
1970 to 1979	241,192
1980 to 1989	322,708
1990 to 1999	179,770
2000 to 2009	209,758
2010	22,022
2011	22,748
2012	20,802
2013	23,000
Source: Yearbook of Immigration Statistics	

1990년대부터 시작된 기러기가족 등 비이민 장기체류자의 미국이주가 2000년대에 들어서자 가속도가 붙어 진행되고 있다. 한국경제의 지속적 팽창과 함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이민비자로 오는 사람들 이외에 비이민 비자로 단기 또는 장기체류를 위해 미국에 도착하는 한국인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2013 회계년도 한해에 미국에 도착한 비이민 한인수는 무려 1백65만7천에 이르렀다. 이중에 유학생, 주재원, 취업비자, 비즈니스 비자 등 장기체류 비이민 한인의 수

는 43만으로 전체 비이민 입국 한인의 26%를 차지했다. 또한 미국으로 이민 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숫자도 근년에 와서 많아졌고, 미국과 한국 양쪽에 생활근거를 마련해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trans-national Korean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

2. 미주 한인인구의 증가

1950년대 중반까지도 미국의 한인 인구는 모두 1만명 미만이었다. 이 숫자가 계속 증가하여 2013년 현재 미국의 한인 인구는 단일혈통이 1백45만, 혼혈을 포함하여 모두 1백76만에 이른다. (U.S. Census Bureau, American Community Survey, 2013.) 여기에 주재원, 기러기 가족, 유학생 등 장기체류자, 그리고 23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를 합치면 Korean American 의 수는 2015년 기준으로 200만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3. 미주 한인사회의 특성

젊은 커뮤니티:

미주 한인 커뮤니티는 미국의 다른 인종/민족집단과 비교하여 정착역사가 비교적 짧고 이에 따라 미국사회에 대한 익숙도도 약한 편이다. 영어구사 능력이 떨어지고 미국제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경제적 적응을 하는데는 불리한 점이 많다. 그러나 이와같은 불리한 여건을 강한 의지와 노력으로 극복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자녀들인 1.5세와 2세들은 다른 어느 집단에도 뒤지지 않는 성취도를 보여주고 있다.

높은 학력, 그러나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지표:

미국의 아시안들은 백인, 흑인, 라티노 등 다른 인종집단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다. 2013년 현재 25세 이상 인구 중 4년제 대학 이상의 학위를 받은 아시안의 비율은 50.7%인데 비해 미국 전체의 비율은 28.8% 다. 아시안 중에서 학력이 가장 높은 집단은 인도인(72.1%)이다. 한인의 학력(53.5%)은 인도인 다음으로 높다. 한인 다음으로는 중국인(52.8%), 일본인(48.6%), 필리핀인(48.0%), 베트남인(26.3%)의 순서다. 백인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 비율은 30.4%다. 그러나 한인들은 높은 학력수준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상대적으로 낮다.

한인들의 중간 가구소득(\$55,000)이 미국 전체 평균(\$53,000) 보다는 높으나, 인도인(\$99,000), 필리핀인(\$81,000), 일본인(\$71,000), 중국인(\$67,000)에 비해서는 많이 뒤진다. 교육수준이 낮은 베트남인(\$57,000)에 비해서도 소득이 낮다. 백인의 중간 가계소득은 \$56,000로 한인보다 약간 높다.

비교적 높은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경제수준 지표에서 한인들이 아시아 이민집단중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영어 구사능력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득지표가 높은 인도계, 필리핀계, 일본계의 경우에 영어를 구사할 수 없는 사람의 비율이 한인계열에 비해 대단히 낮다. 물론 언어문제가 있고, 정착연륜이 짧고, 또한 영세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데에도 그 원인이 있겠으나, 수입을 축소 보고하고 노후에 웰페어(SSI) 같은 정부혜택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에 대한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주 한인 비즈니스:

2007년 미국 경제센서스에 의하면 한인 소유 비즈니스 수는 192,465 개로 미국내 아시안 계 민족 가운데 중국(423,609), 인도(308,514), 베트남(229,149) 계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 총 수입 면에서는 한국계(\$786억)가, 인도계(\$1,525억), 중국계(\$1,428억)에 이어 3위였다.

(5면에 계속)

세대교체:

현재 미주 한인사회에는 이민1세대에서 1.5세대와 2세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주한인의 인구 구조가 한국출생 1세대에서 미국출생 2세대로 바뀌고 있다. 미주 한인 전체에서 미국출생 2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까지 18%에 불과 하였으나, 1990년에는 27%로, 그리고 2000년에는 35%로 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39%에 이르고 있다.

한인 1.5세대나 2세대의 공직, 관리직, 전문직, 기술직으로 들어가는 비율은 1세에 비해 상당히 높다.

서울에서 출생하여 5세에 미국에 와 자란 1.5세 Jim Yong Kim씨는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Ivy League 대학의 총장을 역임하고 2012년에는 세계은행 총재에 취임하여 활동하고 있다. 서울에서 출생하여 13살에 미국으로와 로스앤젤레스에서 자란 한인 1.5세대 Sung Kim씨는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주한미국대사의 직을 수행하고 최근 돌아왔고 현재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관계 주요 직책을 맡고 있다. 한인 1.5세대 John Kim씨도 지난 5월20일 미국의 대표적 보험회사인 뉴욕 라이프의 사장에 임명되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금년들어 한인 1.5세 David Ryu가 LA 시의원에, Michelle Park이 오렌지 카운티 수퍼바이저에, 그리고 Fullerton시에서 Young Kim이 California 하원의원에 당선되었다. 오렌지 카운티의 부지동네 Irvine 시에는 강석희씨와 최석호씨가 연속으로 시장에 당선되어 일을 하고 있다.

이들 이외에 미국 주류사회의 중견급 이상 관리 또는 임원으로 일하는 한인 1.5세와 2세의 수가 2000년대에 들어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한인 1.5세, 2세중 미국의 장성급으로 육, 해, 공, 해병대, 해안경비대, 주 방위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9명이나 되는것으로 알려졌다.

미 주류 사회로의 빠른 진출과 함께 미주 한인사회의 리더십은 현재 이민1세대에서 미국출생 또는 1.5세대의 젊은 세대로 서서히 옮겨지고 있다. 한인커뮤니티 내의 1.5세대와 2세대들의 단체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 단체들이 그 활동규모나 예산, 조직력, 효율성에서 1세 단체를 앞서고 있다. LA의 경우 코리아타운 청소년커뮤니티회관(Koreatown Youth and Community Center), 한미연합회 (Korean American Coalition), 노동상담소 (Korean Immigrant Workers Alliance), 민족학교 (Korean Resource Center) 등 1.5세대와 2세대들이 주동이 된 단체들이 미주한인들 그리고 주변의 다른 소수민족들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2세대들은 아직 그들 스스로의 집단적 정체성이 약하다. 그리고 그들의 뿌리인 1세대 커뮤니티가 당연하고 있는 주요현안들에 대해 대부분 소원하기도 하다.

결사공동체 (Associational Community):

미주 한인사회는 코리아타운과 같은 어떤 특정지역을 단위로 하는 지역 공동체 (territorial community)의 특성과 함께, 여러 인종/민족들 과 함께 섞여 살면서 교회, 동창회, 한인회, 상공회의소, 봉제협회, 식품상협회, 문인협회, 등산클럽, 골프클럽, 간호사회회, 해병동우회 등등... 스스로의 단체들을 통해 협력과 교제의 그물(net-work)을 형성하고 다져가는 결사공동체 (associational community)의 성격이 아주 강하다.

그런데 1세대 커뮤니티 단체들과 관련하여 가장 자주 언론에 오르내리는 기사는 회장선거에 관한 부정, 또는 임원들의 공공횡령에 관한 사항등이다. 코리아타운 안 에 다른 업소들과 뒤섞여 쉽게 눈에 띄고 있는 유사매춘업소들, 이와 관련되는 인신매매 등등의 기사가 자주 주류언론과 한인 커뮤니티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커뮤니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단체들이나 한인교회들은 이와같은 부조리들에 대해 입을 꼭 다물고 있다. 동성애가 죄라는 때는 콘소리를 내도 세금을 속이는데, 법을 지키지 않는것, 횡령, 사기, 성적 방종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 그래서 일부 단체장들의 주요 관심사는 출세를 위한 커넥션을 만드는 데에만 있는것 같다.

각 민족별 빈곤율 비교 Percent of Persons under Poverty Level, Selected Ethnic Groups, 2013		
	% all persons under pov level	% all seniors (65+) under pov level
Korean	14.9	20.2
Chinese	15.6	19
Japanese	8	6.1
Filipino	7	7.7
Vietnamese	15.8	19.1
Asian Indian	8.1	7.8
White	13	8
U.S. Total	15.4	9.4
Source: 2011-13 American Community Survey - 3 Year Estimates		

각국 이민의 사회경제적 위상 비교 Socio-economic Status Indicators, Selected Ethnic Groups, 2013				
	% college + degree 25yrs +	Median househ Income \$	% Individuals in owner occ house	% Health Coverage
Korean	53.5	55,219	46.4	75.8
Chinese	52.8	66,995	62.2	86
Japanese	48.6	70,666	64.8	93.1
Filipino	48	81,481	60.2	88.4
Vietnamese	26.3	56,524	64.4	80.2
Asian Indian	72.1	98,562	54.3	88.6
White	30.4	55,603	69.3	86.9
U.S. Total	28.8	53,046	64.9	85.1
Source: 2011-13 American Community Survey - 3 Year Estimates				

지역공동체: 코리아 타운 (한인타운):

코리아타운은 미주 한인사회의 얼굴이다. 미국에 사는 타인종, 타문화 사람들이 코리아타운을 보고서 한인들에 대한 정의를 내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좋건, 싫건, 원하건, 원치 않건, 코리아타운은 미주한인사회의 거울이 되는 것이다.

LA의 경우를 보기로 하자. LA의 코리아타운은 미국의 전형적 도시형태에 참신한 변화를 가지고 있다. 이곳은 쇠퇴되어 가고 있던 지역을 개발하여 번듯한 다문화 다민족 타운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좋은 예(例)로 언론의 각광을 받고 있다. LA 코리아타운의 일서街는 본래 프루덴셜, 게티오일 등 미국의 대기업들이 자리잡고 있던 곳이었다. 1960년대말경부터 이곳에 있던 대기업들이 교외지역으로 이동을 시작하고, 이어서 주민들이 저소득 근로계층으로 바뀌어지고 있을 시기에, 한인들이 이 지역의 주택가와 상권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결국은 이 지역의 슬럼화가 한인들에 의해 중단된 셈이다. 1990년대부터 가시화 된 코리아타운의 고급주택화(gentrification)는 2000년대에 들어서 눈에 띄게 진행되었고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코리아타운의 전체 주민 가운데에 한인들(2010년 현재58,000)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 30퍼센트가 넘는다. 모두 8개의 우편번호(zip code)를 포함하는 코리아타운 지역에 거주하는 5만8천의 한인은 LA 시 전체 한인의 53%, LA 카운티 한인의 27%, 다섯개의 카운티로 구성되는 LA 광역권 전체 한인의 17%를 구성한다. 이 LA 코리아 타운 지역의 주택, 교통망, 도로, 호텔, 상업용 건물 등 인프라 구조는市政부와 한인 비즈니스, 그리고 한국의 자본이 결합하여 개발되었고, 앞으로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4.29 폭동(1992) 때에는 2,300여개의 한인업소가 불타

거나 부서졌다. 그때 폭동으로 파괴되었던 그 코리아타운이 23년이 지난 지금 생동하는 비즈니스 및 주거지역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Suburbanization: 오렌지 카운티 코리아 타운:

2000-2010년 기간에 LA카운티의 한인 인구는 186,000에서 217,000으로 16.2% 증가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오렌지 카운티의 한인 인구는 같은 기간에 56,000명에서 88,000명으로 57.8% 증가했다.

부에나파크의 비치블르바드와 델변가가 만나는 4개의 코너 블록에 쾌적한 한인 쇼핑몰이 번창하고 있다. 새로운 코리아타운으로 형성되고 있는 이곳 인접지역의 한인 인구는 2000-2010년 사이에 풀러튼이 70.9%, 부에나파키 57.2%, 리미라다가 59.2%, 사이프러스가 133.2%, 라하브라가 143.2% 증가했다. 오렌지 카운티 거주 한인의 연 중간 가구소득 (\$62,300)이 LA 시에 거주하는 한인 (\$38,800)에 비해 61%나 높다.

또 한국에서 오는 비교적 부유한 새 이민자들, 특히 이곳의 우수하다고 소문난 중, 고등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려는 기러기 가족들이 이 지역으로 많이 모이고 있다. 2014년 4월 개장한 부에나 팍 ‘Village Circle on Beach’가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라미라다, 플러튼, 라 파다, 라 하브라, 세리토스, 사이프러스, 로랜하이트 등 북부 오렌지 카운티, 동남부 LA 카운티 주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인종 배경의 사람들이 섞여 만남의 장소, 쇼핑 장소로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붐빈다.

부에나 팍, 플러튼, 라미라다, 라하브라 일대의 비치 블러브드를 따라 앞으로10년 내에 ‘LA 코리아 타운’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새로운 ‘교외지역 코리아 타운’이 크게 자리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분단 70주년 헌시(獻詩)〉

나는 통일의 노래를 부르리라



백 순(법대 58)

해방과 분단 된지 70년이 되는 날
워싱턴에서 시작하여 온 누리를 향하여
8천만 한국민족의 행복한 평화통일을 바라는
통일의 노래를
나는 열심히 부르리라

플려간 아들을 밤마다 기다리는
어머니의 탄식소리
남편의 시신만이라도 빈 무덤 차려 놓고
기다리는 여인의 한탄소리
이별을 안고 죽어가는 수천만의
울음소리 어울린 이별의 노래를
나는 결단코 부르지 않으리라

플쌍히 여기옵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지구상 온 한국민족이 울 부르짖는
통일의 염원과 간구와 기도를 담은
통일의 노래를
나는 간절히 부르리라

언제인가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날
휴전선에 세계평화의 공원이 세워지고
서울과 평양의 거리에서 열싸 안고
통일의 춤을 추고
남과 북의 아이들 한강과 매동강 백사장에서
소꿉놀이하는 날

푸르른 하늘을 바라보며
저 땅끝까지 온 세계를 향하여
가장 아름다운 가장 성스러운 통일의 노래를
나는 신 바람나게 부르리라



광복 70년

서울대 120년 또는 70년 역사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서울대학교의 70년 역사를 돌아본다. 근간에 서울대학교의 역사가 70년이나? 120년이나?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본지는 미주 동문들과 함께 모교의 역사를 함께 돌아보려 한다.

서울대학교(서울大學校, Seoul National University)는 대한민국의 국립대학법인이다. 약칭은 서울대, SNU라고 한다.

1895년에 고종에 의해 설립된 법관양성소를 기원으로 하여 1946년에 공포한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라 경성대학을 중심으로 여러 관·공·사립 전문학교를 통합하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국립 종합 대학인 ‘국립서울대학교’가 설립됐다. 1948년 ‘서울대학교’로 명칭이 바뀌었고, 2011년에는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됐다.



▲ 법관양성소 1회 졸업생 이준 열사(왼쪽)와 지석영 의학교 초대 교장

1946년에 개교할 당시에는 9개 단과대학(문리과대학, 공과대학, 농과대학, 법과대학, 사범대학, 상과대학, 의과대학, 예술대학, 치과대학)과 한 개 대학원으로 출발하였으며, 그 이후 점차 학부와 대학원의 규모가 늘었다. 캠퍼스도 옛 경성대학의 동숭동 캠퍼스를 주캠퍼스로 활용하고, 그 외에 연건동, 공릉동, 을지로, 소공동, 남산동, 그리고 수원 등지에 단과대학들이 있었다.

현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동, 종로구 연건동, 강원도 평창군에 캠퍼스가 있으며, 16개 단과대학 83학과(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5계열 69학과(부) 28협동 과정,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5계열 70학과(부) 29협동 과정, 10개의 전문대학원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대학교의 기원

1895년 4월 19일, 고종의 칙령을 통해 최초의 근대 법학 교육기관인 법관양성소가 설립됐고, 다음 해 이준을 포함한 47명이 졸업장을 받았다. 조선 최초의 근대적 국립 고등 교육 기관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법관양성소는 지금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2007년)으로 이어졌고 같은 해 5월 10일 설립된 소학교 교사 양성기관인 ‘한성사범학교’는 오늘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으로 이어졌다.

1899년 고종이 반포한 의학교관제에 따라 세워진 의학교는 서울대학과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으로 계승됐다. 1901년 최초로 교육부 산하에 산과 및 간호부양성소를 신설하는데 이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시작이었다. 1904년에는 농업과 상업을 가르치는 농상공학교가 개교했고, 지금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으로 이어졌다. 1924년에 조선총독부가가 설립한 경성제국대학은 해방과 함께 경성대학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개교와 그 이후의 변천

1946년 7월 13일 미 군정청 문화교육부가 ‘국립서울종합대학안’을 공식 발표하고 같은 해 8월 22일에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이 공포됨으로써 서울대학교가 공식적으로 설립됐다.

이 법령의 내용은 경성대학을 중심으로 여러 관·공·사립 전문학교를 통합하여 종합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었는데, 9개 단과대학(문리과대학, 공과대학, 농과대학, 법과대학, 사범대학, 상과대학, 의과대학, 예술대학, 치과대학)과 1개 대학원으로 구성

됐다. 초대 총장으로 해리 엔스테드 미국 해군 대위가 취임하였다. 그러나 설립 과정에서 기존 대학에 있던 교수, 직원, 학생들은 반대 운동을 강렬히 전개했으며, 이를 국대안 파동이라 부른다.



▲ 대학본부 동송동, 1946

한국 전쟁의 발발로 1951년부터는 부산으로 옮겨가 전시 연합대학의 형태로 수업을 진행해야 했다. 이듬해 5월에 전시 연합대학은 해체됐으며, 휴전 후 1953년 9월 18일이 돼서야 본부와 문리과 대학이 서울로 돌아오게 됐다.

1960년에는 독재 정권에 항거한 4·19 혁명으로 서울대학교 재학생 7명이 사망했으며 이듬해 5·16 쿠데타로 탄압이 다시 이어졌다. 1960년대는 이에 대한 학생들의 저항이 계속 이어지는 시기였다. 한편 1961년에는 정부의 ‘국립대학 정비절차’에 따라 많은 사범대 학과가 폐지되고 문리대로 합쳐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범대 교수와 학생들은 이에 거세게 항의했으며, 이듬해 정부는 없어진 학과들을 다시 부활시켰다.

1970년대 중반까지 서울대학교 단과대학들은 서울특별시 동송동(문리과대학), 연건동(의과대학), 을지로(사범대학, 음악대학), 공릉동(공과대학), 종암동(상과대학), 경기도 수원시(농과대학) 등 곳곳에 나뉘어 있었다. 이에 서울대학교는 종합화 계획을 세우고 1975년에 공과대학, 농과대학(현재 농업생명과학대학, 수의과대학)과 의과대학 본과만을 제외하고 단과대학들을 모두 새로 세운 관악캠퍼스로 이전하였고, 1980년에는 노원구 공릉동의 공과대학을 관악캠퍼스로 이전하였다. 수원에 남아 있던 단과대학도 2003년에 관악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현재와 같이 관악과 연건캠퍼스만 남게 됐다.



▲ 환도후 서울대학교 접수식, 1953.10.15

한편 10월 유신 이후 계속 억눌려 있던 대학에는 19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 분위기가 조성됐으며 1991년에 총장 선출 방식도 직선제로 변경됐다. 첫 직선제 총장인 김종운을 시작으로 이수성, 선우중호, 이기준, 정운찬, 이장무, 오연천 등이 총장으로 선출됐다.

2011년 12월 28일에는 새로 시행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46년 이래 65년 동안 유지해왔던 국립대학교 체제로부터 독립법인 체제로 전환하였고, 2014년 6월 평창캠퍼스가 준공됐으며 7월 법인화로 전환된 이후에 치러진 첫 간선제 총장 선거에서 성낙인이 제 26대 총장으로 선출돼 현재 재임 중이다.

(자료:서울대본부)

256호 | 2015년 8월

서울대미주동창회보

7

남가주 동창회 : Hollywood Bowl 가족의 날 행사 / 남가주 서울대 동문 합창단 / 한국문화원 기획전(8면에 계속)

음악회장 ▲박혜옥(간호대 69, 총동창회장) ▲김영(수의대 63, 전총동창회장) (사진:홍선례(음대 70), 남가주 총동창회 문화위원장)

Los Angeles Philharmonic과 Gustavo Dudamel, Conductor, USC Trojan Marching Band, Dr. Arthur C. Bartner, Director 와 함께 하는 Hollywood Bowl 가족의 날 행사에는 남가주 서울대 총동창회(회장 박혜옥 간호대 69) 각 단과대학 동문 250여명이 야외에서의 저녁과 음악을 즐기며 하루를 추억에 남게 멋지게 보냈다.

양민(공대 77)총무국장은 마이크를 들고 이리저리 뛰며 준비하는 모습이 야외에서 신나는 어린아이 같았다. 가정대 회장 안혜정(78), 염인숙(가정77) 가족의 밤 행사위원장 과 가정대 임원진 동문들은 매년 맛있는 음식을 준비로 모든 동문들이 편안한 저녁식사를 할 수 있었다.

박혜옥(간호대 69)회장님은 인사말에서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하는 동문 행사에 많이 참석해 주심에 감사하며 하루를 즐겁게 여유있게 보내시고 앞으로의 행사에도 적극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하며 준비해주신 동문들과 오랫동안 참석하신 김영(수의대 63) 전 회장님

의 몇분을 소개했다. 식사 후 야외에서 단체사진을 찍고 조무상(법 70), 김지영(사대 69), 홍선례(음대 70) 몇 분이 사진촬영을 해주었다.

오후 8시부터 시작되는 Tchaikovsky Symphony No 5 in E minor를 첫 연주로 Gustavo Dudamel 지휘는 온 몸의 울동으로 지적되는 악기의 출현으로 단원과의 호흡을 같이하며, 때로는 엇박으로 멋진 조화를 이루며 관객을 사로잡는 미술같은 두 손의 악기로 환상적인 연주를 하였다.

Intermission 시간과 이어지는 2번째 연주곡 “백조의 호수” Tchakovsky Selections from Swan Lake and The Nutcracker (“Scene” from Swan Lake, “Dance of the Cygnets”, “Trepak” from The Nutcracker,

Hollywood Bowl 가족의 날 행사

남가주 서울대 동문 합창단

남가주 서울대 총동창회는 동문들의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다. 그 중 합창반 동아리는 음악을 사랑하는 서울대 동문과 그 배우자로 이뤄져 매주 목요일 저녁 6:30 나성 음악교회 은혜관(1721 N Broadway, L.A. CA 90031)에서 연습하고 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은혜관에서 파트별로 연습하고 있는 모습은 다정하면서 끈끈한 정으로 은혜스러움을 느끼게 했다. 합창의 화음은 깨끗하고 순수한 동문들의 마음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었다.

지휘하고 계시는 장진영(음 88) 지휘자님은 한 눈에 보아도 예술적인 모습으로 30여명의 단원을 두 손 안에 감싸안으며 영혼이 충만한 경지에 이르게 만든다. 반주자로 박현정(음 84) 동문이 수고하며 현 남가주 총동창회 박혜옥(간) 회장님을 중심으로 서영란 음대

회장 및 각 단과대학 김영도 공대회장, 김충현 문리대 회장을 포함하여 의대, 미대, 간호대, 인문대, 치대, 수의대 등 여러 단과대학 동문들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김인권(지) 단장님으로 이사진은 김홍목(문), 김경옥(미), 방정자(간), 박진국(의), 박영희(음), 한진숙(간),

김인권(지), 장진영(음, 당연직) 동문들로 올해의 연주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 공연 일정은 8/30 경신 100주년 기념음악회 찬조 출연, 9/20 음대 동창회 정기연주회 찬조 출연과, 11/21(토) 6:30 지퍼홀에서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음악을 사랑하고 합창에 관심있는 남가주 서울대 동문들이 더 많이 참여하기를 바라며, 11월 21일(토) 지퍼 홀에서의 공연에 함께 하실 수 있는 8월 안에 단원으로 가입하시는 동문과 배우자들께서는 아래로 문의하시길 바란다.

김홍목(문): 310-292-2649, 김경옥(미): 626-676-8783, 방정자(간): 310-277-2090, 박진국(의): 213-380-3306, 박영희(음): 310-709-0957, 한진숙(간): 818-507-1961, 김인권(지): 213-249-8581
음악은 마음을 아름답게 하니 그 모임이 아름답다.
(글, 사진: 백옥자(음대 71) 조직국장)

L.A. 한국문화원 기획전 ‘Another Step’

동문들
작품



▲ 주선희 ▲ 강영일 ▲ 김구자 ▲ 현혜명

지난 7월 10일부터 23일까지 LA 한국문화원에서는 ‘Another Step (또 다른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기획전 이 열렸다. 이 전시는 작년 12월에 멕시코 한국문화원에서 열렸던 ‘LA-멕시코 문화교류전, Soul of Korea’의 연장으로 기획된 그룹전이며, 당시 참가했던 작가들의 작품을 LA에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전시회이다. LA 한국문화원과 멕시코 한국문화원이 공동 주최했던 LA-멕시코 문화교류전은 멕시코 시티 현지의 한류 열풍과 맞물려 연일 많은 관람객이 몰렸으며 기대 이상의 큰 호응을 얻고 2015년 3월까지 연장 전시되었다.

이번 ‘또 다른 시작’ 전시회에는 멕시코전에 참여했던 9명의 작가 중에 강영일, 김구자, 김원실, 김진실, 주선희, 현혜명 등 6명의 여성 중견작가들이 초대되었다. 멕시코 전에 함께 참가했던 작가 중 김상동, 수지자, 수박 등 3명의 사진작가는 ‘코리아’라는 타이틀로 멕시코 시 지하철역에 42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멕시코 지역 순회 전시를 갖는 큰 성과를 얻었다고 한다.

김영산 한국문화원장은 이번 ‘또 다른 시작’ 전시회는 제목이 표현하듯 LA 한국문화원이 로컬 작가들을 대상으로 처음 시도한 것으로, LA를 벗어나 활동 범위를 더 넓혀 나가기 위한 또 다른 시작으로, LA 한국문화원이나 작가들에게 큰 의미를 지닌다. 또한 한 시대의 문화를 이끌어 가는 예술가들이 각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작품을 통해 문화를 지속적으로 교류, 발전시킨다면 양국의 문화 뿐 아니라 경제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시작’ 전시회에는 멕시코에서 받은 강렬한

주선희 동문은 “내가 선호하는 작품 주제는 자연과

사람들이다. 나는 지금 주위에 세상에 현존하는 사람들과 성서에 나오는 신념과 용기있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존경한다. 자연과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생기는 정서와 생각의 영상들을 말보다는 이미지로 표현하고자 한다. 내 작품은 그리는 시이다, 색깔과 선과 모형, 그리고 질감으로 시적인 실존감을 창조하고자 한다. 나의 촛점이 인간적인 것에 머물고 테크놀로지의 테크니크에만 있지 않을 때, 컴퓨터와 시도 함께 공존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주선희 동문은 서울대 문리대를 졸업하고 UCLA에서 페인팅으로 미술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LA와 뉴욕, 한국 등지에서 많은 개인전과 그룹전에 참가했다.

현혜명 동문은 “그동안 해 온 작품들은 각자 나의 다른 면들을 보여 주고 있다. 나만의 생각, 색채는 무엇일까? 낯선 유학, 이민 생활 중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오면서 나는 어떻게 달라져 왔다? 꾸준한 작업을 하면서 계속 나의 변신을 시도할 것이다. 지금 하는 작품은 Ancestral Garden Series이다. 한지, 고서 등을 밑 바탕으로 한 정월이다. 아이들, 작은 동물들이 같이 노는 꽃동산이다.”고 했다. 현혜명 동문은 LA에서는 Thomas Paul Fine Art 등을 포함한 많은 전시회 경력이 있으며 한국, 싱가포르 등에서도 수차례 개인전과 그룹전에 참가했다.

멕시코에 서울대학교를 알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알리고 돌아 온 자랑스런 4명의 동문들에게 찬사를 보낸다.

〈글, 사진: 홍선재(음 70, 남가주 총동창회 문화위원장)〉

북가주 동창회 : 한만섭·이성덕 동문부부 회혼 기념 모임

5월 30일 한만섭(공대 49)박사, 이성덕(문리대 53)동문부부 결혼 60주년 기념 모임이 이날 아침 등산을 마친 북가주 서울대 등산그룹의 멤버들이 주축이 되어 최왕욱(공대 69), 이정욱(사대 73) 동문부부 집에서 10시 반부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열렸다.

점심 후 2시간 동안 한만섭 선배님의 미국 유학, 귀국해서 교수생활, 다시 미국 항공사에서의 경험담을 듣고 회혼 기념으로 2015년 1월에 다녀 오신 남미 여행과 2001년 네팔, 인도 여행시 찍으신 사진을 보며 많은 나라의 유익한 역사, 지리, 문화, 풍습, 종교 등을 배웠다. 인도는 세계4대문명 발상지라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알고 있던 네팔의 문화가 그렇게 발달 되었는지 몰랐다. 편견 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식을 얻어 마음이 흐릿하고 14년 전 여행시 찍은 사진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그 기억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홍경삼(문리 61) 동문>



▲ 동그라미 속의 소년이 서울고3학년 한만섭(19살). 소녀는 무학여중3학년 이성덕(16살). 1949년 기독교 단체 모임에서의 사진. 그러나 서로 안 것은 1945년부터라고 하니, 그림 15살, 12살때부터 70년 동안의 연인사이?... <55년 결혼해서 60년이 흐른 오늘, 후배 Dr. 최승희(사회대 81)가 직접 만든 회혼 케이크를 받으시며 즐거운 표정을 지으신다. 두분의 사랑이 가득한 이 케이크 정말 맛이 일품이었다. 최승희 동문의 다른 면을 보았다. 이날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가 진심으로 두분께 축하를 드렸다.

뉴욕 동창회 : 칸타빌레 음악회 / 한테라 공연



Cantabile 성악 앙상블 초청 음악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재학생과 졸업생들로 구성된 Cantabile 성악 앙상블 초청 음악회가 8월 15일 토요일 7시 뉴저지 잉글우드에 있는 First Presbyterian Church에서 열린다.

서울대 음악대학 명예교수인 윤현주 교수(음대 67, 사진) 지휘로 임지현, 김성지, 김성욱, 채희승 모교동문 독창자들과 김윤수, 김은지, 김재연, 김현정, 원지혜, 유선호, 유주연, 유혜경, 이하연, 정아영, 조한나, 최예슬 등의 Cantabile 성악 앙상블이 광복 70주년을 축하하는 화려한 성악의 향연이 여름 밤의 뉴저지를 감동으로 이룰 것을 약속하는 이 음악회는 우석문서 선교회가 주최하고 서울대 음악대학 동창회와 뉴욕 한국일보가 후원한다.

한테라 동문
카네기홀 데뷔 가요금 연주회



한테라 동문은 서울 음대의 이재숙, 고 김정자 교수로 부터 사사 받았으며, 한국 현대음악의 상징인 강석희 선생으로부터도 지도를 받아 왔다. 한중일 음악을 포함하는 5개의 독집음반을 내기도 하고, 한국일보사에서 한테라의 30년 가요금여정을 담은 Ebook ‘TeRra’ (한국일보사, 장병욱 著)가 출판되기도 했다. 한 동문은 카네기홀 데뷔를 앞두고 동문들의 많은 성원을 바라고 있다.

*티켓문의: Carnegie Corporation;(212) 247-7800



시카고 동창회 : 김(유)부강 전시회



김(유)부강 동문 (미대 61 입학, 오하이오 신시내티 거주)이 29번째 작품 전시회를 시카고 한인 문화회관(회장 이승자, 사대 60입, 이사장 장기남, 문리 62입) 갤러리에서 지난 6월 27일 부터 7월 14일까지 가졌습니다. 시카고 서울대 동문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감사하시고 그림들이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부강 동문은 서울대 미대 서양학과를 1961년도에 입학하고 1965년도에 졸업하고, UC 에서 Master를 1990년에 받고 부군 김영근 동문(의대 61입)과 함께 오하이오주 Cincinnati에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거주하며 많은 작품 전시회를 하였습니다.

* 연락처: Bukang Kim 김(유)부강 bukangkim@yahoo.com

* 2015년도 시카고 전시회 사진모음: <https://chicagobulletin.smugmug.com/Exhibitions/Bukang-Kim-2015/n-tmMkft>



필라델피아 동창회 : 오페라 ‘사랑의 묘약’ / 전희근 독창회

8월 2일 West Chester의 East High School에서 ‘Opera Libera’가 상연한 오페라 ‘사랑의 묘약’을 재미있게 관람했습니다.

텍사스의 한 작은 마을을 무대 삼아 친근하고도 색다른 느낌의 무대를 보여준 이번 “사랑의 묘약”은 오케스트라의 풍성한 사운드와 섬세한 연출이 돋보이는 오페라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30명 규모의 오케스트라 지휘는 작년에 공연된 ‘피가로의 결혼’과 마찬가지로 폴룸버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첼리스트이자 뉴 알바니 심포니 지휘자인 루이스 비아바 2세가 맡았고, 연출은 작년과 동일하게 델라웨어 오페라의 연출자였던 리랜드 킴벨이 맡았습니다.

우리 심희진(음대 90) 동문이 여주인공 ‘Adina’역을 맡았고, 그밖에 한인 바리톤 하태규(Dulcamara), 테너 조상범(Nemorino) 등이 주연으로 훌륭한 노래들을 들려 주었습니다. 2011년 창립 이래, 다섯번째의 오페라를 상연하



Bravo, Opera Libera!

는 ‘Opera Libera’는 펜실베이니아, 델라웨어, 뉴저지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여름 한편의 오페라를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규원 단장 이하 많은 간부들이 한인들로 구성된 오페라단으로 한인들의 문화생활에 기여하기를 원하며 ‘진정한 오페라’, ‘찾아가는 오페라’, ‘쉬운 오페라’를 만들어 오페라의 대중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페라 중의 노래도 영어와 한국어가 동시에 스크린에 나와서 오페라의 즐거움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공연된 ‘사랑의 묘약’ 주연 배우들은 한국인과 미국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데, 네모리노 역에는 테너 조상범씨와 William Lim, 아디나 역에는 소프라노 심희진씨와 Katherine Bell, 돌까마라 역에는 바리톤 하태규씨, 벨로레 역에는 바리톤 Garret Obrycky, Matthew S. Lulofs, 잔네따 역에는 소프라노 양경진씨와 김영은씨, 그리고 Valerie V. Gay가 캐스팅되어 열연을 펼쳤습니다. <김영우 (공대 55)>

“전희근 장로 독창회... 교회당 가득 메운 청중들에 감동 선사”

나이 팔십에도 노래할 수 있다

7월 19일 저녁 6시에 시작된 ‘전희근 장로 팔십기념 독창회’가 필라델피아의 필라한인연합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아직도 땀방한 테너음색과 넉넉한 제스처, 그리고 잔조 최현수 교수의 바리톤열창에 500여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혼을 빼앗기듯 빨려 들어갔다. 매 곡마다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고 레파토리의 음악이 끝나자 성화같은 박수와 앵콜 요청으로 세 곡의 앵콜곡이 더해지기도 했다. 특히 마지막 앵콜송으로 부른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에서 청중과 함께 부른 마지막 절,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길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끝마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함께 불렀다.

이 음악회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림으로써 ‘80에도 노래를 할 수가 있을까?’하는 친지들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주었다. 이 성공에는 최현수 교수의 우렁찬 바리톤 음성도 큰 역할을 했다. 현재 한국 최정상급 성악가이며 해외에 더욱 알려진 그는 이 음악회만을 위해서 한국에서 날아왔다. 그만큼 전 장로와의 인연은 필라델피아를 무대로 근 30년 동안 깊고 깊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손님 접대하기를 좋아해 여러 객들을 자기 집에 묵고 가게했던중 천사를 대접했다는 말씀이 있듯이 나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손님들을 대접했는데 주님께서 그를 보내주셨습니다. ”

전희근 장로는 1960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1971년 펜실베이니아 의대에서 방사선과를 전공, 지난 30여년간 해마다 수 차례 의료 단기선교를 다녀오는 열렬 기독교인 의사이다. 40세부터 성악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최현수 교수와 그 외 미국인 저명 교수들의 레슨을 받으며 성가 성악인으로 성장했다. 13년 전의 사직을 마감할 때에도 필라델피아시 음악의 전당 킴멜센터(Kimmel Center)에서 ‘의사 은퇴 기념 독창회’를 개최해 주류사회에 필라 한인 문화 수준을 돋보이게 한 바 있다.



샌디에고 동창회 : 동문회 골프대회



샌디에고 동문회의 주요행사 중의 하나인 동문회 골프대회가 7월 11일(토) Castle Creek 골프장에서 30여명의 동문골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있었습니다.

이번 골프대회는 70학번과 80학번이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8번 홀에 Closest 1, 2, 3 등에 푸집한 상품이 걸려 있어서 더욱 흥미 진진한 골프대회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미주 최초의 “관악골 주막” 그늘집이 8번 홀에 차려져 운영진(김주성, 오종호, 강교완(강동원 동문 배우자), 진승희(김주성 회장 배우자), 김기현)이 정성껏 준비한 막걸리와 맛있는 부치개로 동문들에게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김기현(일명 바람잡이 소녀, 회장 딸인것 같기도 하던데..)은 부지런히 음식을 서빙하고, 팀으로 한몫 두둑히 챙겨서 그늘집 운영진들

과 2차까지 갔다는 뭇소문이... 뭇풀이 저녁은 만포에서 50여명의 동문과 배우자가 참석하여 시상식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였습니다.

대회에 앞서, 80년대 골프 위원인 김주성회장님, 서정용 부회장님, 오종호 학번 대표, 이정석 학번 대표가 일찍와서 동문회 배너, 음료수, 김밥 및 등록준비를 하였습니다. 김밥으로 간단한 점심 식사 후에 골프 참석자들과의 기념 사진촬영이 있었고, 1시경부터 골프백, 소니 WiFi speaker, 골프공, Putter 등의 경품이 준비된 골프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Par 3인 8번홀은 앞 바람이 불기는 했지만, 푸짐한 상품이 걸린 홀이기에 모든 참석자들이 신중히 그린에 올리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저녁식사 후에 강동원/이재현 학번대표가 시상을 해주셨는데, 손창욱 동문이 Net Score Medalist 상을, 이재현 동문, 강동원 동문, 윤진수 동문이 1, 2, 3등상을, 그리고 10위까지 푸짐한 상품이 있었습니다. 이 후 김주성 회장이 샌디에고 동문회의 다가오는 행사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를 하였고, 서정용 부회장은 샌디에고 바다에서 처음으로 시도할 동문 카약 행사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좋은 사진들을 많이 찍어주신 오종호 학번대표, 이정석 학번대표께 감사드리고, 식사 준비를 책임진 임용갑 학번대표, 그늘집 운영진(강교완, 진승희, 김기현, 오종호), 70학번 대표(강동원, 이재현), 서정용 부회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이번 골프대회 및 저녁식사에 참석해 주신 동문들 및 가족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샌디에고 서울대 동문회가 계속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다음 모임에는 더 많은 동문들이 같이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김주성(농대 83) 회장>

모교 소식 SNU NOW



박영순 동문, 행복한 나눔

지난 2014년 10월 10일 간호대학에 거액의 발전기금을 기부한 박영숙 동문(69년 졸업)의 부조제막식이 있었다. 박영숙 동문은 간호학 발전에 이바지할 간호 인재 양성을 기원하며 여성모성간호학분야 지원금과 장학기금으로 1억 원이 넘는 액수를 우리대학에 쾌척하였다.

박영숙 동문은 1969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2013년 2월까지 우리대학에서 모성간호학 교수로 재직하였다.



송미순 교수, 미국 간호학술원 회원 선정

간호대학 송미순 교수가 올해 미국간호학술원(American Academy of Nursing)의 회원으로 선정되었다. 미국간호학술원은 1973년에 설립되어 현재 미국 Washington DC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 이 회원이 되는 것은 간호학계에서는 최고의 명예로 생각된다. 미국간호학술원은 간호분야의 교육, 관리 실무, 연구 분야의 리더를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여 현재까지 전세계에서 2,200명 정도의 회원이 선정되었다.

송미순 교수는 지역사회거주 만성질환 노인들을 위한 자기관리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와 지역사회 봉사를 중요 업적으로 인정받았다. 송교수는 연구과정에 action research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이론적으로 개발한 서비스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하고 이 결과에 따라 서비스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다시 적용하는 것을 반복하여 대상자요구에 부응하고 효

미주 故최애옥 동문, 장학금 1억원 쾌척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故최애옥(간호학과 1950년 졸업) 동문이 간호대학 「최애옥 장학기금」으로 1억원을 쾌척했다.

2014년 11월 미국 시카고에서 별세한 최애옥 동문은 2008년 병환 중에도 불구하고 간호대 동창회에 1억원을 출연한 바 있으며, 이후 평소 근검절약하여 모은 전 재산을 모교에 기부하겠다는 유언을 남겼다. 이에 유족들은 고인의 귀한 뜻을 세기기 위해 지난 5월 최애옥 동문의 유산을 기부하였다.

성낙인 총장은 2015년 7월 1일(수) 감사패를 전달하며 “높은 경륜과 학덕을 통해 후학의 귀감이 되신 최애옥 동문님과 가족 분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기금은 간호대 학생들이 지성과 품성을 겸비한 선(善)한 간호전문인으로 성장하도록 소중히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애옥 동문은 서울대 간호대 졸업 후 미국 미네소타대에서 연수를 받았으며, 서울대 간호대



교수로 재직했다. 1967년 도미, 시카고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으며 제3대, 제7대 서울대 간호대 동창회장을 역임했다.

최애옥 동문 유족은 “할머님은 먼 미국에서도 항상 모교인 서울대에 대한 애정이 많으셨고 늘 그리워하셨다”며 “본인의 이름이 서울대에 새겨진 것을 보시면 그 곳에서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한편 간호대학은 지난 6월 29일(월) 김성재 간호대 학장을 비롯해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애옥 동문의 뜻을 기려 간호대 본관 로비 벽면에 부조를 설치하고, 교정에 기념식수 행사를 개최했다.

과적인 중재를 찾아가는 방법이다. 이 연구전략은 일반적인 건강관련 연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생리적인 효과 외에도 대상자의 반응과 만족을 중요한 결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송교수는 지난 16년간 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인복지관과 보건소에서 당뇨병이 있는 노인들을 위한 자기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고 이 과정에서 50여편의 연구결과들을 국제적 및 국내 저명학술지에 발표하였다.

올해 10월 15일~17일 Washington DC에서 열리는 미국간호학술원 정기총회에서 임의식이 있을 예정이며 이후 FAAN(Fellow of American Academy of Nursing)의 칭호를 사용하게 된다. 송미순 교수는 1985년 이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 재직 중이며 간호대학학장, 노인간호학회회장, 한국노년학회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450억 기부하고도 남은 짜장면까지 싸가셨던 분”

故정석규 신양문화재단 명예이사장 추모 열기



“주인 양반, 짜장면 남은 거 좀 싸가겠소.”

정석규 신양문화재단 명예이사장 얘기다.

식사를 마친 노인은 들고온 플라스틱 통을 꺼내 음식을 담아 가곤 했다. 남은 음식을 싸서 굶어 쟁기는 모습이 영락없는 평범한 시골 노인이었다.

“감사의 뜻을 전하러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그런 회장 사무실은 처음 봤어요. 책과 다 뜯어져 20년은 넘은 듯한 소파밖에 없었죠.”

생전 모교 서울대에 450억원을 기부한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향년

서울대 자연대, 전략분야 키워야 세계 10위 도약

해외 석학 진단 해외 최고수준 교수 영입 위해
임용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이 수년 내 세계 10위권 단과대학 진입을 목표표 변화에 시동을 걸었다.

국내 주요 대학 중 처음으로 감독 없이 시험을 치르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수업을 이끄는 ‘융합과 학’ 과목을 도입하기로 했다.

자연대의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 서울대를 찾은 리타 폴웰 미국 메릴랜드대 명예교수(전 미국국립과학재단 총재)는 “시설과 장비, 인적 자원 등 모든 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학이 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자연대는 폴웰 교수를 비롯해 각 분야 석학 11명을 초빙해 교육 및 연구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청취하는 해외석학평가를 2005년 이후 10년 만에 실시했다.

폴웰 교수는 “서울대 자연대가 세계 10위권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교수 임용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전략 분야를 선정해 최고 수준의 교수를 영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외석학평가 결과를 담은 보

고서는 오는 9월 발표될 예정이다.

이 같은 요구에 맞춰 자연대는 내년 1학기부터 시험감독 없이 학생들이 양심껏 시험을 치르는 ‘아너 코드(honor code)’를 도입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시험이나 과제 등에서 정직하게 행동하겠다는 서약을 남기고 이를 어길 시에는 징계를 감수하도록 하는 일종의 ‘명예 규정’으로 미국 프린스턴대, 스탠퍼드대 등 해외 명문대에서 운영 중이다.

또 자연대는 내년 1학기부터 전공과 관계없이 자연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는 융합과학 과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 과목은 수강생이 강의 주제를 미리 공부한 뒤 예상한 내용을 토대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질문하며 수업을 이끄는 ‘거꾸로 수업(flipped learning)’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논문 연구에 집중한 나머지 교육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해 우수강의 10개를 선정해 시상하는 등 강의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한국경제>

86세의 나이로 금년 5월21일 별세한 정 명예이사장을 이렇게 떠올렸다.

김 전 장관은 2002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재직시절 정 명예이사장이 어려운 형편의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알게 됐다.

그는 25일 “처음 같이 밥을 먹은 곳이 이사장이 자주 가시던 4천원짜리 칼국수집이었다”며 “이사장은 중국집을 가더라도 짜장면, 우동만 먹으며 남은 걸 싸가면서도 그렇게 모은 돈을 아낌없이 기부하셨다”고 회고했다.

5년 전 감사의 표시로 ‘신양 할아버지 감사 이벤트’를 기획했던 화학생물공학부 졸업생 문주용(30)씨도 정 명예이사장의 학생 사랑을 추억했다.

문씨는 “거부가 신은 낡아 떨어진 구두를 보며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다”며 “몇 년 전부터 후두암으로 힘들어하셨는데,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근황을 알아봐드리면 눈물을 글썽이시며 감동하실 정도로 학생들을 꼼짝이 생각하셨다”고 말했다.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도 추모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별세 소식을 제일 처음 알린 ‘신양 할아버지께서...’라는 글에는 200여명의 학생들이 댓글을 달았다.

‘당신께서 만들어주신 계단 덕분에 현재저의 꿈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연남뉴스〉



서울대, 제8회 발전공로상 수상자 선정

서울대학교는 제 8회 발전공로상 수상자에 김철 선생(84)·이옥자 여사(77), 류진 풍산그룹 회장(57), 박양숙 여사(89)를 선정하였다.

서울대는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서울대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그 공로를 표창하고자 2008년에 발전공로상을 제정하여 수상자를 선정해오고 있다. 발전공로상 수여식은 2015년 6월 25일(목) 오전 서울대 교수회관(컨벤션홀)에서 열렸다.

김철·이옥자 부부는 우리나라 학문발전과 미래인재 양성에 깊은 뜻을 갖고 평소 근검절약하여 모은 재산을 의과대학 장학금인 ‘김철·이옥자 장학기금’과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선한인재장학금’을 쾌척하는 등 30억원을 기부하며 인재육성에 기여하였다.

류진 회장은 학생들의 교육연구 진흥은 물론 다양한 학생활동의 터전이 될 ‘버들길 풍산마당’을 건립하고, ‘영어영문학과 학술기금’을 쾌척하는 등 인재양성과 학문진흥에 기여하였다. 또한 총동창회 부회장, 영어영문학과 동창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모교를 후원하고 있다.

故정영호 명예교수(생물학과) 부인인 박양숙 여사는 「박양숙·정영호 기초학문후원기금」을 설립하였고, 중앙도서관 「운초도서관 장학기금」을 쾌척하는 등 110여억원을 기부하며 학문발전에 공헌하였다. 또한 아시아 어린이를 위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100억원을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활동도 펼치고 있다.

글로벌 미술대학 네트워크

“ART-UNI-ON” 출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과 현대자동차와의 중장기 협력 프로젝트 글로벌 미술대학 네트워크 ‘ART-UNI-ON(아트유니온)’(www.art-uni-on.com)은 “ART - UNI-VERSITY - ONLINE”을 줄인 것으로 학생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자, 전 세계 미술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문화예술계는 물론 대중들과의 교류 및 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

미술대학(원) 재학생이면 누구나 AUO 사이트 내 자신의 작품을 게재하여 공유할 수 있으며,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벽 없는 새로운 교육의 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AUO 멘토링 프로그램에는 미술관 관장, 큐레이터, 작가, 디자이너 등 문화예술계 현장에서 활동하는 세계적 전문가가 멘토로서 참여한다. AUO 멘토 및 운영위원회가 선정한 학생은 ‘AUO 아티스트’로서 3개월간 2명 이상의 멘토로부터 작품에 대한 정기적인 크리티크 등 창작 활동에 대한 멘토링을 받게 된다. 멘토링 결과는 AUO 사이트에 공유되며 작품에 관심 있는 학생 및 대중들도 작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전문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술대학 학생 및 대중과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세계 무대 진출

학생회관의 미로 같은 계단을 올라가 4층에 도착하면 구석 어딘가에 유리문으로 된 카페가 있다. 따뜻한 색깔의 벽지와 목재 테이블 위 봉제 인형들이 시선을 끄는 이곳은 ‘문화인큐베이터’(문큐)다. 학생들의 참여로 꾸려나가고 있는 이곳은 카페인 동시에 나름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문화양성소이기도 하다. 많지 않은 학내 자치 문화공간 중 하나인 문큐는 어떻게 생겨났으며 어떤 문화를 펼쳐가고 있을까?

문큐는 과거 총학생회(총학) 주도로 생긴 공간이었지만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다. 총학생회실 맞은편에 있는 문큐는 1996년 총학이 도서관을 비치해 학생들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꾸린 공간이었다. 하지만 총학 운영위원 한 명만이 담당하다 보니 운영이 소홀해졌고 재정문제도 생기는 바람에 임시 폐장됐다. 이후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재개장 요청이 있어 2003년 46대 총학생회가 문큐를 다시 활성화했다. 이어 생협, 미대학생회, 관악작은도서관이 문큐의 공동 운영단체로 선발됐고, 총학에서는 운영할 의사가 있는 학생들을 새로 모집했다. 공사를 거쳐 지금의 모습을 찾은 문큐는 현재 학생으로 구성된 약 30명의 운영위원이 다른 단체의 도움 없이 직접 꾸려나가는 공간이다.

10평 남짓한 문큐라는 공간에는 운영위원의 손길이 곳곳에 닿아 있다. 운영위원은 카페에서 음료를 만들고 서빙을 하는 기본 업무는 물론 재료 조달부터 카페 인테리어까지 세심하게 관리한다. 재료를 준비할 때조차 의미 있는 소비를 지향하는 것은 문큐의 특징이다. 커피, 코코아, 초자의 경우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하고, 우유나 과일 경우 대형 체인점보다는 지역 마트를 통해 구매하고 있다. 카페 인테리어 역시 문큐 운영위원들의 몫이다. 그들은 직접 카페의 모습이 담긴 설계도를 그려보며 카페에 필요한 소품을 직접 구비한다. 카페 한쪽에 놓인 책들은 과거에 진행했던 ‘책방 탐방’ 활동의 일환으로 아름다운 가게와 중고서점에서 구매했다. 소설뿐만 아니라 여행, 요리 관련 책이나 만화책 등이 다양하게 구비돼 머무는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카페 운영에서 나온 수익금은 학내 문화활동 지원의 원동력이 된다. 취지는 좋은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아리에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 문큐는 최근 ‘브로콜리 너마저 주크박스 뮤지컬’, 미대극회 뮤지컬 ‘일천구백’에 도움을 보냈다. 또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고 싶



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웹사이트에 공개되는 문화예술계 전문가들과 그들이 선정한 작가들의 커뮤니티이션은 대중들에게도 신선한 경험이자 자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큐

커피 한 잔의 휴식과

우리가 만들어가는 문화의 공간,

문 화 인 큐 베 이 터

은데 마땅한 공간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카페 한쪽 벽을 전시벽으로 제공하는 한편 후원금도 지원했다. 지난번에는 디자인과 학생의 드로잉 작품을 전시해 손님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낸 적도 있다. 이문희 운영위원장(화학부·11)은 “수익금도 결국 학생들에게서 나는 것이라 돌려주는 차원에서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큐의 운영위원들은 학내의 문화활동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매달 그들만의 자체적인 문화행사를 만들어나가는 데에도 힘쓴다. 가장 대표적인 ‘예술은 아무나 한다’는 기타, 작곡, 마술 등에 대한 강좌 프로그램이다. 지난 가을 문큐에는 학내에서 강사를 초빙해 기타, 작곡, 소묘, 마술 4개 강좌를 열어 약 10주간 진행했다. 작년 봄에 진행한 사진강좌의 경우 수업과 출사를 반씩 진행해 결과물을 전시벽에 전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감사의 도움 없이 문큐가 직접 진행하는 문화행사도 있다. 매 계절에 맞는 행사를 기획하는 문큐는 지난 4월에는 성년의 날을 맞아 향수 만들기 행사를 벌였다. 이 행사에 선 한 커피이 실수로 오렌지향 향료를 쏟아부어 향수 이름을 ‘too much orange’로 지은 재미난 일화를 남겼다.



▲ 학생들이 문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점심시간의 문큐는 조용하고 한가한 분위기다.

오는 7월부터 시작된 제1기 AUO 멘토링 프로그램에는 작가 이용백, 중국 중앙미술학원 미술관 학예연구부장 왕춘첸(Wang Chunchen), 디자이너 슬기와 민의 최성민, 작가 데이비드 브룩스(David Brooks),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서진석, 토탈미술관 큐레이터 신보슬, 작가 공성훈, 디자이너 배상민, 작가 유근택, 미술평론가 정현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멘토로 참여한다.

또한 AUO 내에 어드바이저로 참여하는 뉴욕 현대미술관(MoMA) 건축·디자이너 시니어큐레이터 파올라 안토넬리(Paola Antonelli), 작가 이우환, 핀란드 알토대학교 미술대학 학장 안나 발토넨(Anna Valtonen),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 존 라이크만(John Rajchman), 건축가 승효상 그리고 사진작가 배병우 등 세계적인 인사들의 예술에 대한 철학과 생각 그리고 작가로서 성장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조언이 게재된다.

AUO 공식 오픈은 6월 1일로 제1기 AUO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를 희망하는 국내외 미술, 디자인 및 건축 대학·대학원(박사과정 포함) 재학생은 오는 30일까지 AUO 사이트에 작품을 업로드해 지원할 수 있다. (단, 작품 활동을 하는 타전공생도 지원 가능) 멘토링 프로그램은 1기를 시작으로 3개월 단위로 연중 진행될 예정이며, 2016년도에는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시 및 수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AUO 2016(가제)을 개최할 계획이다. (자세한 지원 방법은 AUO 사이트 참고 www.art-uni-on.com). <대학신문>

교내에 위치한 문화공간이다 보니 문큐는 학생들이 공연이나 활동을 할 장소가 없을 때 ‘필요의 방’이 돼주고 있다. 과거 문큐의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졸업생들은 카페 공간을 결혼 피로연 장소로 쓰기도 했다. 신민재 운영위원(건축학과·13)은 “그 선배들은 학교에서 식을 올린 후 문큐로 요리를 싸와 이곳에서 피로연을 마무리했다”는 에피소드를 전했다. 그밖에도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같이 할 사람이 없을 때 문큐는 모임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베이킹을 좋아하는 한 운영위원은 문큐에서 사람들을 모아 베이킹을 하는 모임을 만든 적이 있다. 이문희 운영위원장은 “문큐가 학생들과 더불어 아이디어를 키워갈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며 바람을 내비쳤다.

소소한 분위기의 카페면서 문화를 키우고 만들어나가는 공간인 문큐는 운영위원과 손님 모두에게 의미 있는 곳이다. 문큐는 운영위원에게는 카페 운영과 함께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경험을 주는 공간이면서, 그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학내에서 조용히 쉬거나 책을 보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이 돼주고 있다. 황문규 운영위원장(건축학과·12)은 “문큐는 학내 다른 카페와 달리 조용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라며 “아지트 같은 분위기 덕분에 손님들에게 ‘컨셉을 잘 잡았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고 말했다. 손님 지수빈 씨(건축학과·15)는 “가까운 데서 수업이 있을 때 종종 오고 비치된 기타를 쳐보기도 한다”고 문큐에 대한 애정을 밝혔다. 바쁜 수업 시간 사이에 나만의 쉬는 공간을 찾고 문화생활도 하고자 한다면, 학생회관 437호 문화인큐베이터에 들러보자. <대학신문>

세계에 펼친 젊은 연구원의 꿈

끈기와 열정의 힘은 실로 위대하다. 이들을 보면 더욱 그렇다. 세계적인 학회와 학술대회에서 수상의 기쁨을 만끽한 젊은 연구원들의 이야기.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

해검: 에너지 저장 장치의 이용이 소형 기기에서 전자 자동차 등의 대형 기기로 이동하면서, 더 높은 에너지 밀도와 출력, 가격 경쟁력을 지닌 저장 장치의 개발이 중요 시되고 있어요. 이런 흐름에 따라 이차전지 전극 소재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고, 저장 전압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창민: 특정 집단만이 아는 특화된 암호(함수)를 '다중 선형함수암호'라고 해요. 오랜 노력 끝에 2013년 두 형태의 암호가 개발됐는데, 때문에 그중 한가지 암호를 빠른 시간 안에 해독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그 암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됐지만, 관련 연구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았죠.



연구를 시작한 계기

해검: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만 활용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원을 유용하게 사용하려면 이를 저장하는 장치가 개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에너지 저장 관련 분야가 실용적이라는 생각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창민: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걸 즐겼어요. 취업을 생각하며 건축학과로 입학했지만, 결국 정말 하고 싶은 수학 공부를 위해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그때 수강한 암호학 수업이 기초과학에 대한 선입견을 바꾸게 했고 그렇게 현실과 밀접한 암호학의 매력을 느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수상의 기쁨

해검: 이번 에너지 저장 관련 연구로 *미국전기화학회 에너지 분야 최우수 대학원생 연구상에 선정됐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더 좋은 연구를 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큰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창민: **유로크립트에 제출한 논문이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습니다. 먼저 국가 암호 공모전에 연구 결과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이를 바탕으로 논문을 제출해 정말 과분한 상을 받게 됐어요.

연구의 어려운 점 & 보람된 점

해검: 예상과 반대의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과정에 오류가 없었는지 확인하거나 결과를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며 진행한 제 연구가 다른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때는 정말 보람되죠.

창민: 논문 작성이 어려웠어요. 수학 문제를 푸는 것 못지 않게 다른 사람의 이해를 위해 글을 잘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암호 해독법을 찾아 세계적인 암호학자들에게 먼저 알렸는데, 논문 속에서 보던 이들에게서 직접 축하 메일을 받았을 때예요.

서울대학교의 장점

해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한다는 점입니다. 특정한 분야의 시각으로는 풀기 힘들었던 문제가 다른 시각에서 쉽게 해결되기도 하는데, 각 분야의 권위자인 교수님들을 통해 다양하고도 전문적인 시각을 배울 수 있어 정말 좋습니다.

창민: 서울대학교에는 다양한 능력을 지닌 학생이 많습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철저한 자기관리, 취미생활, 놀



은 집중력과 열정 등 다재다능한 학생들과 만나고 교류하며 서로를 발전시킬 수 있었어요.

연구자가 지녀야 할 자질

해검: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달리기로 비유하면 마라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라톤을 100m 달리 것처럼 초반부터 전속력을 다하면 중간에 지쳐 끝까지 뛸 수 없잖아요. 연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바심 내지 않고 멀리 보며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민: 연구는 끝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요. 호기롭게 시작했더라도 지치는 때가 오게 되죠. 그럴 때 열정이 없으면 연구를 지속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잘못된 결과 또한 하나의 결과이고, 작은 결과가 모여 큰 결과를 얻는 것이 연구이기에 중간에 지치지 않는 열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통한 최종 목표

해검: 우리에게 직면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실에서 얻은 결과를 일상에 적용하기 위해 여전히 해야 할 일도 많고요. 앞으로 제 연구가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생활이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창민: 누구도 풀지 못할 암호를 개발하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암호 해독 방법을 찾아 좋은 일에 쓰고 싶습니다. 지금은 대학원생, 연구원으로서 연구와 공부에 집중하면서 탄탄한 기본을 갖추고, 세계적인 수학자와 암호학자의 꿈을 준비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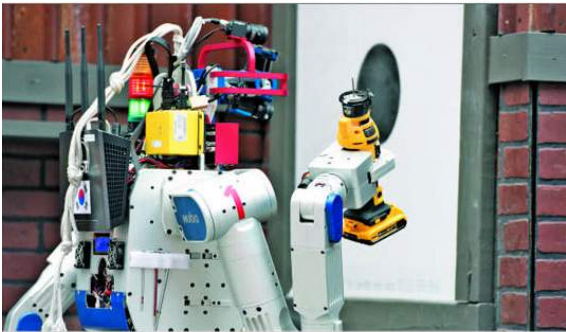
과학

한국의 젊은이들, 세계 최고 로봇 일꾼 만들다 ‘KAIST팀 우승, SNU팀은 12위’

운전·밸브 닫기 등 8개 과제 수행, 유연한 상황 대처 가능해져



▲ 6일(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포모나 전시장에서 열린 '로봇공학 챌린지(DRC)' 대회에서 오준호 교수(상급 랫말 등 사람)가 이끄는 KAIST 팀이 DRC 휴보2 로봇으로 우승해 상금 200만달러(약 22억원)를 받았다. /포모나(캘리포니아)=박건형 기자



지난 2015년 6월6일(현지 시각), 한국의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오준호 교수(61)가 이끄는 로봇 '휴보(hubb)'가 미국 국방첨단기술연구원(DARPA) 주최로 열린 '로봇 공학 챌린지(DRC)' 결선대회에서 일본과 미국, 독일, 이탈리아, 홍콩 등 결선에 올라온 22개의 로봇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재난 수습 로봇으로 우승했다.

캘리포니아 포모나에 실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을 본떠 만든 결선 대회장에서 각 로봇은 ▲차량 운전 ▲차량 하차 ▲문 열고 들어가기 ▲밸브 닫기 ▲벽에 구멍 뚫기 ▲콘센트 켜기 ▲장애물 치우기 ▲계단 오르기 등 8가지 과제를 수행해야 했다. 참가팀들은 대회장에서 수백m 떨어진 곳에서 제한된 속도의 와이파이(무선랜) 통신으로만 로봇을 조종해야 했다. 로봇의 눈을 통해서만 현장을 파악할 수 있고, 그나마 통신도 자주 끊기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로봇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 정해진 과제를 수행해야하는 인공지능(AI) 기능도 필요했다.

이번 대회를 위해 제작한 'DRC 휴보2'는 무릎 부분과 발끝에 바퀴가 달려 있다. 빠른 속도로 평지를 이동할 때는 무릎을 접고 꿇어앉은 자세로 바퀴를 이용해 달린다. 작업을 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는 다시 두 발로 일어서 걷는다. '변신 로봇'이 된 것이다. DRC에 출전한 로봇 중 용도에 따라 작동방식까지 변하는 것은 휴보뿐이었다. 휴보는 마치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것처럼 8가지 과제를 안정적이고 완벽하게 수행해냈다.

3위를 차지한 '탈탄 레스큐'를 제작한 미국 카네기멜런대의 토니 스텐츠 교수는 "휴보가 주변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면서 "참가팀 중에서 가장 재난 현장에 적합한 로봇을 구현해냈다"고 평가했다. MIT의 한 연구원은 "일본만 경쟁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한국도 동등하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 박재홍교수(전기공학부)가 이끄는 '팀 SNU'는 12위에 그쳤다. <서울신문&조선일보&DARPA>

.....
운전하고... 벽 뚫고... 밸브 잡고... - 6일(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포모나 전시장에서 열린 '로봇공학 챌린지(DRC)' 결선에서 KAIST 팀의 DRC 휴보2 로봇이 차량을 운전해 가장 재난 지역으로 진입하고, 드릴로 벽을 뚫고, 밸브를 손으로 돌려 잠그는 등(사진 위에서부터) 8가지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 우승을 차지했다. /DARPA 제공 ▶

명소 안내와 탐방 01

동부지역 뉴욕과 워싱턴 중간에 위치한 펜실바니아주 필라델피아에 가볼만한 명소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대 이번 동창회보 7월호(제 255호)에 실렸듯이 이 넓고 넓은 미국 땅에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 서재필 기념관이 자랑스럽게 있다는 사실과 크고 작은 박물관들과 미국의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유적지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가볼만한 Lancaster, PA에 있는 한 극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16년전 미국으로 이주하여 남부 플로리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인디애나를 거쳐서 현재는 필라델피아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낯선곳에서 첫발을 딛고 살 때마다 집과 직장, 교회, 가끔 골프장에 가는 것이 생활의 전부였던 제가 교회 친구와 함께 재작년에 Lancaster, PA에 있는 (Sight & Sound The-

‘Sight & Sound Theatres’ in PA

atres) (Branson, MO에도 있음)에서 성극 'Noah'를 들어오던 소문 이상으로 감명 깊게 보았고, 작년에는 'Moses'를 역시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저희도 필라로 이주한지 5년 밖에 안되어서 잘 모르겠지만 주변 지인들의 말에 의하면 'In the Beginning(천지창조)'가 가장 감명 깊었다고 전해주니 천지창조를 공연할 때까지 필라에 살면서 꼭 가보려고 합니다.

일년에 한 편씩 공연을 하는데 올해는 'Joseph'을 공연한다는 Lancaster 극장이 Amish Village에 있기 때문에 문명을 거절한 채 전기나 모터없이 마차타고 다니는 수만명 Amish인들의 이색적인 생활 모습도 엿볼 수 있으며 관광지로서 기관차를 타고 농장과 마을과 성경에 기록된대로 만들어진 유대인들의 성막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미주 전국에서 수십대 대형버스를 타고 수 많은 단

거주지역의 명소를 소개해 주십시오.
new@snuaa.org로.



2015 SNU 커리어기자단 발대식



경력개발센터(소장: 박찬 교수, 재료공학부)에서는 본교 학생들의 진로탐색 활동을 돕고자 '2015 SNU 커리어 기자단'을 모집하고 지난 6월 29일(월), 롯데국제교육관(152-1동) 208호에서 발대식을 진행하였다.

‘SNU 커리어 기자단’은 평소 관심 있는 분야에 종사하는 선배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을 통해 진로 탐색 및 설계의 기회를 갖고, 인터뷰한 기사를 E-Book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에게도 관련 진로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기획,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2015 SNU 커리어 기자단’은 제 3기로 19명의 학생들을 선발하여 총 10개의 팀을 구성하였으며, 하계 방학기간 동안 교육/연구, 금융/보험, 방송/문화예술, 경영/회계, 법률/행정, 영업/마케팅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선배들을 인터뷰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제 3기 발대식에서는 오리엔테이션 및 기자단 역량강화 특강 시간으로 구성하여, TV 조선 박소영 기자, 씨네21의 손훈주 사진작가를 강사로 초청해 인터뷰 및 기사작성방법을 안내하고, 인터뷰 사진촬영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참가자들은 오리엔테이션 및 기자단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활동했던 1기와 2기 기사단들의 활동내용을 숙지하고, 인터뷰 기사 작성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이고 실증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경력개발센터에서는 앞으로도 재학생들의 진로설계 및 준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는 경력개발센터 홈페이지(<http://career.snu.ac.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My Story & Your History

미주동창회보에서는 미국 전역에 살고 계시는 동문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여러 선배님들의 삶의 경험과 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네잎 클로버의 꽃말이 '행운'이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의 수많은 세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라 합니다.

〈My Story & Your History〉는 동문님들의 인생을 되돌아 보고 다시 생각해보며 인생의 세잎 클로버를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의 가장 젊고 찬란했던 시절을 '서울대'라는 같은 공간에서 보낸 여러 동문님들의 미주에서의 삶을 조금씩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원하시는만큼 쓰셔서 동문님의 학창시절 사진과 현재 사진, 한 장씩을 함께 지희 이메일 news@snuua.org로 보내주세요.

많은 동문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담당: 허유선(가정대 83)편집위원)

1. 간단한 본인소개와 이민동기, 또는 미국명에 발을 디딘 날의 회고?
2. 인생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은?
3. 학창 시절로 돌아간다면 해보고 싶은 일이나, 한국에서 살았다면 어떤 다른 삶을 살았을까요?
4. My Favorite Things : 책 음악 영화 음식 사람 장소 등등
5. 자랑하고 싶은 특별 건강관리 비법은?
6. Bucket List 가 있으신가요?
7. 미주총동창회와 동창회보의 발전을 위한 의견

"My Best Friend is the One who brings the Best in Me." -Henry Ford

01 김명자(Nebraska, 문리대 62)



1. 약혼자가 미국으로 의학연수를 왔기 때문에 1966년 같이 따라와서 Boston University Chapel에서 결혼하고 미국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문리대 식물학과 졸업.
2. 아들과 딸을 다 좋은 대학에 보내어 교육 받게 한 것이 인생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자랑스러운 일이고, 미국에서 살았기에 지난 25년간 평양을 13회 정도 방문하여 전쟁 때 잃었던 형제 4명과 그 가족들을 찾고 도울 수 있었던 일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3. 만일 한국에서 살았다면 교육계에 남아서 대학교 총장 정도 되었을 것 같고, 정치계로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4. Dan Brown의 'Davinch Code'와 '악마와 천사' 책을 좋아하고, 박경리의 '토지', 이조왕조실록과 영화 'Gone with the wind'와 시베리아 기차여행과 아프리카 Safou.
5. 24 hour fitness center에 일주일에 5회 이상 가고 음식을 가리지 않고서도 규칙적인 수면과 생활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6. 나의 bucket list는 서울에서 기차나 택시를 타고 한 시간이면 갈 수 있는 내고향 황해도 황주까지 가는 것입니다.
7. 미주동창회보에 바라는 것은 좀 더 많은 동문들은 끌어들이고 집행부에서 계획한 동창회비 30%이상 확보하고 한국동문 소식보다 미주동문 소식을 더 많이 기사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02 허병렬(New York, 사대 42)



1. 1959년 국비장학생으로 George Peabody College for Teachers Education을 위해 유학. 1964년 교육석사 학위를 하기 위해 뉴욕으로 와서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1973년 뉴욕한국학교 개교 후 지금까지 교장직을 맡고 있고 Columbia University와 CUNY에서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2. 여럿이 함께 사는 공동체의 즐거움과 일상 생활의 새로운 변화를 항상 추구하는 생활 습관을 인조이하는 나의 삶의 철학에 인생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3. 만일 한국에 있었다면 교직에 종사하면서 그림 그리고, 글 쓰고, 연극을 즐기며 살았을 것.
4. 파스칼의 명상록, Tchaikovsky, Mozart, Beatles의 음악들과 영화 '장살없는 감옥', '닥터 지바고', 'Sound of Music', 그리고 유럽여행.
5. 특별한 본인의 건강법은 시간에 따른 식사와 걷기(맨하탄의 모든 곳을 걸어나님)를 즐기는 생활이고 특별히 자랑할만한 것은 시력이 좋아서 안경이 필요치 않은 점.
6.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생각하는 것이 bucket list입니다. 인생의 끝까지 모든 순간들을 즐겼다는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7. 꾸준히 발행되고, 넓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새로운 발전을 할 수 있는 기사를 실어주길.

03 정성주(New England, 간호대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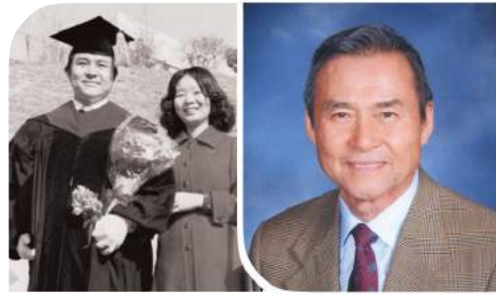
1. 70년초 전세계를 보고 싶고, 어린 마음에 조그만 나라에서 뛰쳐나오고 싶어서 University of Minnesota에서 master degree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왔음.
2.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은 매일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항상 positive attitude를 갖고 새로운 것을 알려고 노력하는 삶의 태도이다. 내가 행복하고 건강해야 후손들(6 grandchildren)과도 잘 지낼 수 있다.
3. 미네소타 대학에서 석사를 마치고 한국으로 그 당시 갔으면 학교에 남아서 교수로 또는 학장으로 한국 사회가 원하는 답답한 삶을 살았을 듯 싶다. 안간 것이 천만 다행.
4. 'Lonely Planet' 같은 여행 관련 책에 관심이 많다. 모든 클래식 음악을 즐겨 듣는다. 요즘 우연히 발견한 'Vanie Last'의 'Lone-ly Shepherd' 등 짧은 Youtube를 즐긴다.
5. 우연히 막내가 대학으로 떠난 후 gym에 조인해서 뜻하지 않게 좋은 학생이 되었다. Yoga, Pilots bora boot camp 등 다양한 class를 regularly 하고 있다.
6. 나의 Bucket list는 하고 싶은 것 모두 다 해보는 것. 벌써 6년전 남편이 fully retire 했을 때부터 실행하고 있다. 지구에 있는 세계오지(Road less traveled)에 가서 하이킹하기.
7. 그동안 옆사람 눈치보며, 강직된 동창회였지만 이제는 좀 더 동창 누구나 막론하고 학창시절을 기억하고 남는 시간에 도움이 되고, 격려를 줄 수 있는 조직이 되길 바란다. 이 survey부터 좋은 출발이다.

04 이준행(New York, 공대 48)



1. 섬유공학을 전공하고 1961년 영국유학을 마친 후,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을 볼 보기 위해 1970년 뉴욕에 지사를 차려서 이민생활을 시작하였다.
2. 인생의 의미있는 일은 1954년 결혼 후 61년을 같이 살아온 아내와 같이 한 삶. 2014년 6월 1일 60주년 기념 회혼례이다. 사업가로써 열심히 일했고 60년대 이후 한국의 수출 산업을 위해 일한 것도 보람있었다.
3. 만일 한국에서 살아도 기업가로서 특별히 다른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 같다. 미국 생활은 후회없이 만족하고 행복하다.
4. 좋아하는 일은 낚시. 1957년 처음으로 외국 여행을 시작으로 세계 모든 곳을 거의 다 보았다. 불어와 이탈리아로 손주들과 대화하기. 골프.
5. 특별히 자랑할 건강관리법은 호흡과 관련된 스트레칭인데 아침 저녁 2번씩 20분 정도 날숨과 들숨을 잘 조화시켜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6. 86살의 인생에 최선을 다 했고,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이뤘다. 별다른 bucket list는 없다.
7. 동문회가 크게 활성화 되서 여러 분야에서 모교를 후원하길 바란다. 특별히 장학사업을 후원하고, 유지시켜가길 바란다.

05 송요준(Colorado, 의대 64)



1. 한국에서는 흉부외과를 전공하였고 미국에 와서는 전공을 마취과로 공부했고 지금은 Colorado에서 Pain Clinic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내 인생에 가장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은 기독교인으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3. 만일 한국에서 살았다면 흉부외과 의사로 일하다가 벌써 은퇴했을 것 같네요.
4. 감명깊게 읽고, 좋아하는 책은 Oswald Chambers의 My Utmost For His Highest입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음악은 Kol NidreCello music으로 특별히 Yo Yo Ma연주가 아니라 스스로 연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5. 매끼마다 한 수저 적게 먹고, parking lot에서 한걸음이라도 더 걸으려 노력한다.
6.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매일의 삶을 사는 것이 나의 bucket list입니다.
7. 내 주변의 동문들에게 편하게 연락할 게 있는 동문이 될 수 있게, 서로 자주 연락할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수 있도록 회의의 장을 만들어 주시길.

06 김창수(New York, 약대 64)



1. MBA를 받기 위해 미국 유학은 후 뉴욕한인타운에서 30년 넘게 공인 회계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2.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일은 대학재학중 대학신문에 글을 쓰기 시작해서 그 후 50여년간 한국과 뉴욕에서 일간 신문과 주간 신문 등에 고정칼럼을 쓰는 일을 한 것.
3. 대학 전공인 약학과는 관계가 없는 분야에서 일하다 은퇴했을 것이고, 아마 건강은 미국에서 사는것 보다 더 나빴을 것 같다.
4. 시모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15권) 등, 같은 저자의 모든책을 좋아하고, 바르셀로나와 프라하, 동경(Tokyo) 등이 좋아하는 여행지이다.
5. 토요일에 골프, 일요일엔 등산, 국과 찌개 등을 멀리하고, 생선위주의 식단으로 소식.
6. 아직 가 보지 못한 외국의 여러 나라를 방문하는 것이 bucket list 입니다.
7. 미주 동창회보에 바라는 사항은 매 페이지마다 하단에는 무조건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가 부족하면 각 지역의 동창회 PR 광고로 하고 글을 쓴 필자의 사진을 꼭 첨부하고 글을 간결하고, 분량 조절을 간결하게 했으면 합니다.

독자의 광장 '7월호를 읽고...'

“8월 호를 읽은 독자들의 소감과 제안을 기다립니다”
news@snuua.org로

7월호 23면, 이태상(문리대 59) 동문의 “우분트(UBUNTU)란 말을 아시나요?”에 감명을 받고 몇 자 써본다.

글 중, “내가 너를 위하면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고, 너 때문에 나는 두배로 행복해”라는 구절이 특히 마음에 와 닿는다.

인간이 타인을 위할 수 있다는 것은 우선 자신에게 감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뉴욕 타임스의 데이빗 부룩스(David Brooks)는 지난 7월 28일자 신문에 “감사의 구조, The Structure of Gratitude”라는 글을 썼는데, “감사”가 가능한 것은 어떤 친절이 기대에 넘칠 때 생긴다고 했다.

‘가공 감사하다고 느끼는 것’은 정상이지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 꼭 부자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아니다. 외관적으로 볼 때 초체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늘 감사한다. 자기가 이룬 업적이 당연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오히려 주위의 작은 친절과 호의에 감사할 줄 알고 남의 성공에 찬사를 보내며 투

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평상으로 생각하는 이 ‘자연’의 순환’을 보면서도 그는 감사한다. 해뜨는 것, 비오는 것, 석양을 바라보며 이것이 모두 기적이라 생각한다.

일생의 황혼에 들어선 나도 이제 내 감사한 마음을 고백하고 싶어진다. 지난 38년을 미국 여러 대학에서 교편생활을 하며 남편 공경하고 세 아이들 기르느라 정작 나는 내 마음을 조용히 가다듬을 틈을 내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룩해 놓은 성공(?)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때도 있었다.

애들이 잘자라 각기 가정을 이루고, 8명의 손녀, 손자를 우리 부부에게 선물해 주었을 때 우리는 감사했다. 우리 부부가 젊었을 때 삶에 허덕이며 애들에게 잘못된 일도 많았는데 이렇게 잘 자라 준 것이 감격스러웠다. 또 50여년 삶을 같이 했던 남편 오기창(법대 50)이 5년전 작고한 것은 너무나 슬프지만 그 때 내가 건강해서 그이를 잘 돌볼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 <오(조)봉완(법대 53), 조지타운대학 명예교수>

미주 동창회보 편집실 貴中

안녕하십니까? 이상봉(문리대 65)입니다.

이번 7월호 동창회보를 받아보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지금까지 받아 본 동창회보 중에서 가장 제 마음에 드는 동창회보였습니다.

깨끗한 편집,記事들의 배열과 위치, 특히 글자體(Font)와 크기(Size), 사진 등등... 모든 면에서 아주 세련된 동창회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Philadelphia 동창회는 비록 규모면에서는 작은 편인지 모르겠으나 뛰어난 人才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동창회보 편집실에서 수고 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봉(문리대 65)>

낙방 좌절 딛고, 나만의 에세이로 재도전 성공

서울대서 유펜(Univ. of Pennsylvania) 와튼스쿨 편입하는 변용준씨



고교 시절에는 ▲SAT 2370점 ▲SAT II 4 과목 만점(각 800점) ▲AP 10과목 만점(각 5점) 등 나무랄 데 없는 성적도 받았다. 고2 때는 홍콩에서 열린 세계사업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고3 때는 영국에서 개최된 언어학올림피아드에서 장려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실적에도 고 3 때는 아쉽게 와튼스쿨 입사에서 낙방하고 말았다.

이후 서울대에 입학한 변씨는 누구보다 학교생활을 열심히 했다. 1학년 2학기 때는 전액장학금을 받았을 정도다. 하지만 오랜 꿈을 접는 게 마냥 아쉬웠던 그는 ‘편입’으로 재도전을 결심했다. 그는 “한국 대학에서 와튼스쿨에 편입하는 사례가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와튼스쿨에서도 절차를 몰라 제가 일일이 와튼스쿨에 전화해 확인해가며 편입 준비를 해야 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배달 앱 ‘수수료 갑질’에 불나 대학생들이 ‘착한 앱’ 만들었다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최석원(22)씨 등 서울대 학생 5명은 지난해 10월 배달주문 앱 ‘샤탈’을 출시했다. 샤탈은 ‘샤’자와 유사한 서울대 정문 모습과 ‘배달’을 합친 단어다. 이 앱은 등재 수수료도, 주문 수수료도 모두 ‘0원’이다. 당연히 수익도 없다. 서울대 캠퍼스 주변 음식점들이 기존 배달 앱의 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자는 취지다. 출발은 우연히 찾은 신림동의 한 중식당 사장님의 하소연이었다. 그는 “배달 주문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4500원짜리 짜장면 한 그릇을 팔면 700원이 남는다”고 했다.

기존 배달 앱은 유명 배우가 등장하는 광고를 하지만 정작 학생들 수요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관악구에서는 서울대 캠퍼스 안까지 배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학생들이 자주 찾는 음식점이 검색되지 않기도 했다.

변씨는 와튼스쿨 편입 지원 시 ▲고교 성적(1~3학년) ▲대학 1학년 성적 ▲교수 추천서 ▲대학 카운슬러 추천서 ▲자기소개서(에세이) ▲대학 재학 중 비교과 활동 실적 등을 제출했다. 그는 이 가운데 ‘에세이’ 작성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다. 고교 때 와튼스쿨에 불합격한 이유의 하나가 에세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당시 에세이를 ‘아버지의 회생’에 대해 썼는데, 그 탓에 자신의 진취적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와튼스쿨 에세이는 ▲자기만의 스토리(성장배경·정체성·흥미 등) ▲실패 극복 경험 ▲도전 경험 ▲(인생에서) 자신이 해결한 문제 ▲유년기에 자신을 성장시킨 경험 등에서 한 가지 주제를 골라 작성해야 한다. 변씨는 이 가운데 ‘자기만의 스토리’를 골라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잡지 ‘BTL’을 창간한 경험을 중심으로 에세이를 작성했다. ‘에세이에는 저 자신에 대해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를 적는 ‘추가 정보(additional information)’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작년 여름방학 서울에서 해남 땅끝마을까지 무전여행을 다녀온 경험을 썼죠. 열세 번 히치하이킹을 하며 여행한 경험을 기술해, 전과 달리

밝고 진취적인 모습을 강조했어요.”

면접은 국내에서 일하는 와튼스쿨 졸업생과 치렀다. 면접관으로 나온 졸업생은 ‘서울대를 왜 떠나려고 하느냐’ 등을 질문했다. 변씨는 “면접은 또 하나의 추천서와 같다”며 “면접관이 일반적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서로 묻고 대답하는 편안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국에 대한 관심을 피력했다. 중국 투자 전문가로도 활동하고 싶다는 꿈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중학교 때 중국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고 중국어에도 능통하다. 변씨는 “교수추천서를 받을 때도 경영학과 동아시아근대사 교수 두 명에게서 추천서를 받아 중국에 대한 제 관심을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사실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학 합격’이 끝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대학 합격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나 다름없잖아요. 저는 후배들에게 지금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어떤 일에도 끝없이 도전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새로운 도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계속 생각하고 실천하다 보면 훌쩍 성장한 자신을 만날 테니까요.”

〈조선일보〉

반영한 것 같아 즐겨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샤탈은 일부러 리뷰나 순위표를 넣지 않는다. 최씨는 12일 “리뷰나 순위표는 조작 위험성이 있다”면서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착한 공생의 불길은 다른 곳으로 옮겨 불고 있다. 3월 연세대와 고려대 버전의 ‘캠퍼스 배달 앱’이 출시된다. 샤탈의 취지에 공감한 두 학교 학생이 최씨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최씨는 “앱 개발과 출시에 이르는 과정은 0에서 1로 가는 것이 힘들다. 이미 1을 경험한 이상 다른 학교의 앱 개발은 빠른 시일 안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 서울대 음식 배달 앱 '샤탈'을 개발한 최석원씨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는 21일 성낙인 서울대 총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형구조실험동(극한 성능 실험센터) 기공식을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대에 따르면 대형구조실험동은 지상 4층, 지하 1층(연면적 5389㎡, 건축면적 2336㎡) 규모에 극한상태 실험을 위한 최적 환경을 갖추게 된다.

대형구조실험동은 인적·자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총돌, 폭발 등 극한 상황을 모사한다. 이곳에서 토목·건축 구조물의 거동 및 성능을 평가해 재난·재해

에 대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게 된다.

주요 실험시설로는 자유낙하실험시설, 급속제하실험시설, 중고속충돌실험시설, 극한온도실험시설 등이 있다.

2005년부터 모금된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설립기금과 국토교통부의 국토교통기술혁신연구사업의 재원 177억원으로 건설되는 대형구조실험동은 2016년 12월 건축공사 완료 후 실험장비 구축 및 시운전을 완료해 2017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뉴스1 코리아〉

광복 70년

서울대 역사연구소

서울대 역사연구소는 역사 연구에서 학제적 협력과 거시적 접근방법을 강조하는 최근 국내의 역사학계의 새로운 경향에 부응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역사학 분야의 학과가 국사, 동양사, 서양사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서울대학교에서는 많은 교수들이 그러한 경향에 주목하여 왔고, 2002년 3월에 역사 연구에 종사하는 교수 46명이 대학본부에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설립을 신청하였다. 역사연구소는 2003년 3월 29일 이성규 교수(인문대 동양사학과)가 초대 소장으로 임명됨으로써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역사연구소는 소장과 행정실, 운영위원회, 그리고 3개 연구부 --국제사연구부, 비교사연구부, 역사이론 및 교육연구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문대학에서 의과대학에 이르기까지 10개 단과대학, 20개 학과(부)에서 교수 60명이 겸무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역사연구소는 세계 역사학계의 최근 동향에 대해 관심을 환기하면서, 아시아의 근대성에 대한 연구에 주력한다. 특히, 아시아의 근대성에서 보이는 특징과 그 아래에 자리 잡은 전통을 탐구하는데 노력을 경주한다. 이를 위해 국내학술대회와 국제학술대회를 격년으로 개최한다. 역사연구소는 또한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정기적 개최되는 세미나, 토크쇼, 그리고 교양강좌에서 잘 드러난다. 그리고 ‘역사용어사전’ 편찬을 비롯해 역사연구소가 수행해온 프로젝트에서도 나타난다.

더욱이, 역사연구소는 “세광 펠로우쉽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년 박사후 연구자 1인을 선발해 생활비와 연구비를 지원하고, 또 “범양 펠로우쉽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한국고대사에 종사하는 박사 후보자 1인에게 연구비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국문 및 영문 학보 발간과 각종 총서 출판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http://hosting03.snu.ac.kr/~history4/>



서울대 미국학연구소

미국학연구소는 한국과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중요한 나라인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 걸쳐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1976년에 설립되었다. 본 연구소가 내세우는 ‘미국학’은 우리 근현대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미국의 특수성에 주목하기보다 학문적 연구 활동의 대상으로서 미국을 객관화하고 우리뿐 아니라 세계 질서에 끼친 미국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에 바탕을 둔다.

그러므로 미국의 언어 및 문화 현상에 자리잡고 있는 미국만의 특수한 양상과 인류문화의 보편성 사이의 관련상을 보여주는 다양한 문화 자료들을 발굴하고 소개하고 미국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외국 유수의 연구기관들과 활발하게 연구 성과를 나누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학 연구의 현주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韓國學中央研究院,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은 한국 문화의 심층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행하기 위해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설립된 대한민국의 연구 및 교육조직이다.

교육부 산하 재단법인이며 한국 문화에 대한 인문 사회과학적 연구, 국내외 한국학 분야 연구 요원 양성, 고전 자료의 수집, 연구, 번역 및 출판 등 한국학 연구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등의 한국학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 그리고 한국학을 위한 학술정보의 전산화 등의 연구활동과 관련 사업들을 벌이고 있다.

1978년 6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에 따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韓國精神文化研究院)으로 설립되었으며 1980년에는 한국학대학원을 개원하였다. 한편, 1908년 고종 때 시작되어 대한민국의 기록유산인 국가왕실문헌 및 민간사대부문헌을 관리·연구하는 도서관이자 학술연구기관인 ‘장서각(藏書閣)’이 1981년 대통령령 제10,588호에 의해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합쳐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5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이 공포되면서 현재의 이름으로 개칭되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에 있다.

<웹사이트: http://www.aks.ac.kr>



본 연구소의 이러한 활동들은 학문적으로는 인문학 연구의 근본 과제인 인간과 사회에 대한 성찰 차원에서의 가치를 발견하는 데 있다. 이는 미국의 거버넌스 문화의 쟁점들을 분석하고 미국의 학문, 제도, 문화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가능하게 해 줌으로써 대중들로 하여금 우리와의 특수관계로 인해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주관적 이해가 빚어내는 그릇된 편견이나 과도한 편향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는 성찰의 계기를 제공해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소는 연구 성과를 연구집단 뿐 아니라 일반에게도 가깝없이 공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상아탑에 갇힌 폐쇄적 학문이 아닌 진정한 공동체의 인문학의 하나로 미국학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활동 및 강연회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 연구활동: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중점지원연구소 지정 “미국사회의 지적흐름에 관한 연구” 수행(1996), 이를 [미국학 총서] 1,2권으로 출판(1998), “21세기 미국

의 역사적 전망”에 관한 연구 수행(1998~2000), 이를 [미국학 총서] 3권으로 출판(2001), 학술진흥재단의 인문학육성지원 사업 지정 “현대 미국 소설과 희곡에 나타난 미국의 정체성과 소비자 문화 연구” 수행(2002), 이를 [미국학 총서] 4권으로 출판(2002), 재단법인 미래인력연구원과 공동으로 “미국의 문화와 거버넌스: 쟁점과 과제”를 미국학 총서 5권으로 출판(2003), 학술진흥재단 협동연구과제인 “세계화에 대한 각국의 반응양상 및 대응전략 - 종합적, 역사적 접근”을 미국학 총서 6권으로 출판(2007)

• 학술지: 매년 학술지 [미국학], [미국학 모노그래프] 출간
• 단행본: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과정](1995)의 10여 권 출간
• 정기 학술대회: 매년 가을 국내외의 교수 초청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은 [미국학]에 수록, 매년 6회 미국학 공개강좌 및 미국학 집담회 개최

<http://amstin.snu.ac.kr/kor_main/index.php>

서울대, ‘극한상황’ 실험 위한 대형구조실험동 기공식



재학생글 1

진심 어린 동행,
공존의 힘

저는 강직성 사지마비로 손의 힘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 제가 그림을 그립니다. 계기는 미술 치료 선생님의 한 마디였습니다. 어느 날 저의 드로잉을 보시더니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아픈 듯 슬픈 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자신만의 선(線)을 찾기 위해 수없이 연습하고 있다는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선생님의 한 마디가 진로에 대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장애 때문에 늘 불편했던 손이 오히려 저만의 독특함을 만든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전신마비 장애를 지닌 학생이 경제학과를 졸업하기도 했고, 학교가 장애 학생을 위해 여러 부분을 지원한다는 기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노력 끝에 서울대학교에 합격했고, 상을 받거나 종전 작가들과 함께 큰 전시회에 참여해도 쯤이지 않던 제 그림에 대한 비난과 논쟁이 멈추

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걱정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들의 지나친 걱정이 제 그림에 대한 편견만큼이나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대학 생활에 대한 걱정은 입학 전 장애학생지원센터와 동아리 턴투에이블(turn to able)에서 마련한 새내기 장애 학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새내기 엔티에 참여할지 망설이고 있는 저에게 동아리 선배가 ‘필요한 도움은 선배들과 친구들이 줄 테니, 마음을 열고 먼저 손을 내밀어 보라’고 조언해주기도 했습니다. 용기를 내 난생처음 혼자 참가했던 미술대학 새내기 엔티는 신나고 행복한 대학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식으로 미술학도의 길을 걷기 시작한 지 이제 두 달이 지났습니다. 학교에는 휠체어를 타고 다녀도 힐끔거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같은 분위기 속에서 함께 예술가의 길을 걸어가는 친구와 선배, 교수님의 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 턴투에이블 선배들, 장애학생지원센터 선생님과 도우미 선배들, 미술대학 식구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윤하균(동양화와 15학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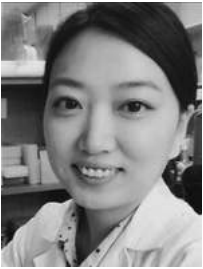
조선족 서울대 연구원,
美 암학회 ‘젊은 과학자상’ 받다

서울대 박연옥씨 4월 18일 수상, 헬리코박터 위암 발병 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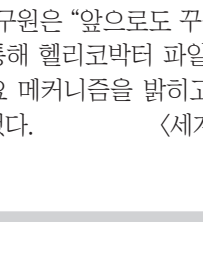
조선족 출신 서울대 연구원이 세계 최고 권위의 암 학회에서 ‘젊은 과학자상’을 받았다.

서울대는 박연옥(32·사진) 약대 중앙 미세환경 연구센터 연구원이 4월 18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미국암학회 연례 학술대회(AACR) 2015’에서 젊은 과학자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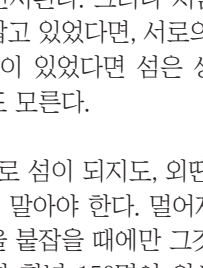
박 연구원의 논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유도된 인산화를 통한 위암세포의 미토파지 촉진’은 위암이 생기는 과정에서 암을 일으키는 단백질의 새로운 신호 전달 양식을 관찰한 내용을 담고 있다. 논문은 이번 학회의 구연 발표 대상으로 채택됐다.



조선족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박 연구원은 연변대학에서 석사를 마친 뒤 한국 정부의 국가 초청 국제장학생 프로그램에 선정돼 서울대 약대에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박 연구원은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를 통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주요 메커니즘을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를 통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주요 메커니즘을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재학생글 2

섬, 연건 서울대대학병원

‘관악’은 ‘서울대학교’의 동의어로 통한다. 교지의 이름이 <관악>이고, 그 유명한 정희성의 시에서도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고 한다. 이렇게 ‘관악’을 접할 때마다 조금은 섭섭하다. 해화동에 있는 연건캠퍼스에 내가 속한 탓이다. 활기찬 대학로에 둘러싸여 정반대의 척척함을 풍기는 이 공간에는 1500여명의 간호대, 의대, 치대 학생들이 있다. 거대한 관악캠퍼스를 대륙이라고 한다면 연건캠퍼스는 섬과 같다. 그런데 이 섬 안에는 또 다른 섬이 있다.

연건에 막 들어와 해부학 시험을 치른 1학년 의대생들은 기대와 불안감이 뒤섞인 오묘한 심정으로 결과를 기다린다. 드디어 성적이 공개되는 날, 상위 10등을 제외한 140명의 학생들은 좌절감에 빠진다. 밥을 새가며 공부를 했는데도 난생 처음 겪는 두 자리, 혹은 세 자릿수의 등수. 난 과연 의대 체질이 맞나 하는 혼란. 그리고는 시작되는 의정정의 레퍼토리. 삼포세대의 청년 사회에서 의대생들의 불평은 하찮기 짝이 없지만, 이들 중에는 정말 암울한 상황에 처한 열 명 남짓한 이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독도’라고 부른다.

불룩한 정규분포의 끝자락을 넘어서 외딴 섬처럼 떨어져 있는 무리. 그 최하위권 성적분포 집단이 바로 독도다. 여기서 의대생들은 두 번째 섬의 존재를 자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숨어있기에 직접 볼 수는 없다. 150명의 학생들 모두가 평소와 같이 밥을 먹고, 떠돌고, 도서관에 가지만 그들 중 열 명은 애써 연기를 하고 있다. 위의 140명에게 유급 제도는 일종의 자극제 역할을 하는 허상이지만, 아래의 10명에게는 실체가 있는 현실의 문제가 된다. 자칫하다간 학비 천만 원과 1년이 날아간다는 걱정. 그 보다도 더 두려운, 소외에 대한 불안함. 친구들로부터 버려진 채로 4년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막막함. 온갖 감정에 시달리면서도 티를 내지 않고 독도 집단은 강의실에 앉는다. 독도는 장 그르니에가 <섬>에서 말한 비밀스러운 섬도 아니고, 정현종이 <섬>에서 가고 싶어한, 사람들 사이에 있는 섬은 더욱 아니다. 그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섬일 뿐이다.

누군가는 이들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할 것이다. 처음엔 맞을 수도 있

에 뿌듯함을 느낀다. 누군가에게 손 내밀어주어 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섬의 존재는 당연시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면, 서로의 소외에 대한 감수성이 있었다면 섬은 생겨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스스로 섬이 되지도, 외딴 섬을 내버려두지도 말아야 한다. 떨어져가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을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다. 의대 한 학년 150명이 의사가 되기까지 함께 나갈 길은 멀다. 시야를 넓힌다면, 우리 밖의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나갈 길은 훨씬 더 멀다. 우리 모두는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온갖 소외로 넘쳐나는 시대다.

어디에나 섬이 있다. 그 섬은 사람들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현석(의학 12)>



그리하여 의대생들이 세 번째로 발견하는 섬은 그들 자신이다. 의료계 뉴스를 보면서 이를 갈고, 병원노동자들의 시끄러운 농성에 짜증을 내면서 우리는 점점 고립되어간다. 일반의 정서에서 멀어진다는 걱정은 어느 샌가 사라지고,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배타성을 가지는 모습

영시해설·감상

The Four Ages Of Man
: 인간의 네 시대 - William Butler Yeats

He with body waged a fight,
But body won; it walks upright.

Then he struggled with the heart;
Innocence and peace depart.

Then he struggled with the mind;
His proud heart he left behind.

Now his wars on God begin;
At stroke of midnight God shall win.

그는 몸으로 싸웠다네
그러나 몸은 이겨 당당히 걷는다네

그리고 나서 마음으로 싸웠다네
순진성과 평화는 떠난다네.

다음엔 정신력으로 싸웠다네;
자랑스러운 마음을 뒤로 했다네

이젠 하나님과의 싸움이 시작된다네;
한밤 중 하나님은 단숨에 이길 것이라네

시 감상 : 이 시는 인생의 계절 또는 삶의 단계를 노래하고 있다. 일찍이 에이즈 외에도 많은 이들이 인생의 계절에 대해 글을 썼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The Seven Ages of Man’나, 앤 브레드스트리트의 ‘The Four Ages of Man’나, 다니엘 레빈슨의 ‘The Seasons of a Man’s Life’이란 작품들이 인생을 사계절이나 단계로 설명했다. 에이즈 역시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삶을 네시대로 구분해 깊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책소개

다윗과 골리앗

이 책을 쓴 저자 ‘말콤 글래드웰’은 참 재미있는 사람이다. 표지의 사진만 보더라도 이목구비가 쫘스렵지 않고 시원시원하다. 그의 책 <다윗과 골리앗> 또한 저자를 닮았다.

이 책에는 반짝반짝 세상사는 지혜가 담뿍 들어있다. 현자들은 우리에게 금은 보화보다 지혜를 구하러지만, 금은보다 얻기가 더 어려운데 지혜가 아닐까? 그러나 저자는 쉬운 방법이 있다고 귀띔한다. 세상을 다르게 보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 어찌 세상이 하루 아침에달라지겠느냐만 우리 관점이 달라지면 쉽게 사는 방법이 환히 보인다는 말이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로 책의 첫 장이 열린다. 읽어나가다 보면, “어, 이런 말도 쓰여있었어?” 하며 성경을 다시 찾게

256호 | 2015년 8월

동문신간

Dream Waf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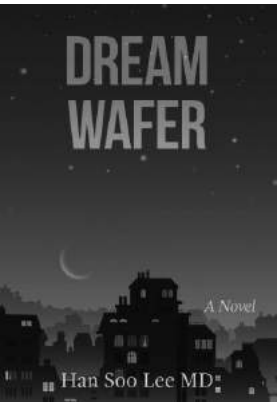
(저자: 이한수)

동문 이한수(의대 61년 졸)의 영문소설 Dream Wafer가 신간 되었다.

의과 대학 졸업 후 졸곧 정신과 의사로 일해 온 이한수 동문은 사람들이 꿈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꿈에 대한 보편적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늘 아쉽게 생각해왔었다. 다분히 추상적인 꿈의 명제를 어떻게 쉽게 설명할 길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던 차에, 저자는 Dream Wafer 라고 하는 미래적인 발명품을 내세워 놓고 이를 둘러싼 320여 페이지 소설 형태의 이야기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꿈의 정체를 여러 모로 설명하고 있다.

Dream Wafer는 꿈을 주문(注文)하는 computer program이다. Dream Wafer는 동전 크기의 skin patch로서, 개개인의 Genome과 생리화학적 원리에 근거하여 각자가 원하는 꿈을 꾸게 해주며, 임상적으로는 여러 감정질환, 불안증, 수면장애 및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에 도움을 준다.

이야기 가운데에 등장하는 호사다마의 악역들 중 한사람은 신경 유전학자, Dr. Sobien Molton이다. 그는 이 소설의 주인공인 Dr. Julian Jupitren의 제자이면서도, 스승이 발명한 Wafer program을 도용(盜用)하려고



여러번 program 절도를 시도한다. 그러나 그의 지병인 조울증(bipolar disorder)때문에 그는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된다. 이야기 전반에 걸쳐 romance 와 amateur Sherlock Holmes류의 탐정에 얹힌 suspense도 있다. 주인공 Dr. Jupitren 과 흑심을 품은 Dr. Molton 과의 관계가 어떻게 인간의 양심승리로 끝나는가 하는 것은 이야기 말미에 가서 드러나게 되며 그 내용의 일람(一覽)은 독자들의 몫일 것이다.

이 소설을 영문으로 쓰게 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과학용어들의 한국어 번역이 용이하지 않았던 것 때문이었다고 한다. Amazon.com에서 Dream Wafer를 주문할 수 있다. Kindle version도 출시되었다.

<의대 동문 이재두(61년 졸)>

책소개

다윗과 골리앗

며 교묘하게 위장하는 반면, 악자는 강자가 보여주는 것(외형)만 보고 지레 겁을 먹는다.

오늘날 수많은 악자들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있고 우리도 그 중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콤은 강조한다. 우리 자녀들이 꼭 일류대학을 가야 성공하는가? 학생 수가 적은 학급이 항상 이상적인 교실인가?

저자는 패자처림 속 늘어져 살지 말라며 세상을 꼼꼼히 들여다 보면 길이 보이고 자신감이 솟는다. 이것이 바로 지혜이고 이를 얻는 방법을 아홉가지 제목으로 재미있는 실례와 통계를 들어 친절히 소개하고 있다.

동 문 글 [공 트]

딸구와 공여사 <전편>



이석호 (공대 66)

나는 지금 내 친구 딸구의 유품을 챙기다가 문득 호기심이 생겨 딸구의 스켓취북을 펴 보다가 딸구의 생애에 대한 추억에 잠긴다.

나와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딸구의 본명은 “이철구”였다. 그런데 같은 반이었던 삼학년 때의 담임선생이 심하게 사투리를 쓰는 이북 사람이어서 철구를 “딸구”로 발음을 한것이 원인이 되어 초등학교 친구들과 동네 아이들 간에 별명이 딸구로 되 버렸고, 본인도 별 저항없이 그것을 받아 들이는 바람에 본명인 철구란 이름은 잊혀지고 아는 친구들 간에 이름이 딸구가 되어버린 것이다.

딸구는 초등학교 삼학년 때 시골서 전학온 후 졸골 서울에서만 살았으면서도 자기 고향의 사투리를 끝끝내 고치지 못했다. 같이 사는 홀 어머니의 지독하리만치 심한 사투리의 영향이었을 것이다.

집이 가난한데다가 어릴적에 아버지를 잃은 딸구는 아들의 교육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딸구의 어머니가 언제나 반에서 공부로 첫째를 하던 딸구를 초등학교 때부터 길거리에 내보내 아이스케기 장수나 구두담이등을 시키는 바람에 일찍잡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집에서 가까운 아현동의 모 공업고등학교를 다녔아 했다.

공고를 졸업한 딸구가 체신부에 다니면서 벌어오는 돈으로 옷이나 해 입고 먹고싶은 것이나 사먹는데 탕진을 하는데다 가끔 극장에서 만난 남자들과 어울려 판짓까지 하는 그런 어머니 뒷바라지 하느라 딸구는 직장에 다니면서도 전세 한칸 마련 못하고 마포국민학교 옆 산기슭의 무허가 판짓집 동네의 작은 단칸방에서 사월세 살이를 해야 했었다.

딸구는 군대갈 나이가 가까와지면서 나를 만나면 자주 어머니 걱정을 했다. 그러다가 불행인지 다행인지 어머니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죽는 바람에 딸구는 해방이 되었다. 자유로워진 딸구는 해병대를 제대한 후 외항선을 타기 시작하더니 어느날 캘리포니아 해안을 따라 항해하던 배에서 작은 배낭 하나에 수영복 차림으로 물로 뛰어내려 해엄을 쳐서 미국에 입입국 하는데 성공했다. 그후 어떻게 어떻게 몇번 재주를 넘더니 스물 일곱이던 나이에 그렇게 소원이던 미국 영주권을 따냈다.

그리고 몇번 편지가 오간후 연락이 끊기면서 잊고 살았던 딸구를 다시 만난건 내가 설흔이라는 늦은 나이에 미국 씨애틀로 유학을 오고 나서였다. 하루는 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경수야!”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딸구가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서있었다. 그 학교에서 핸디맨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면서 저녁때 일 끝나고 다시 보자고 약속하고 헤어졌다. 그 후 딸구와 나는 자주 만나 술과 음악을 즐기면서 재밌게 지냈었다.

영특하고 재주가 많은 딸구는 공부도 잘했지만 음악과 미술에도 재능을 보여 국민학교 때 교실벽에 붙이는 그림과 화보 등을 도맡아 놓고 그렸었고, 중 고교시절 밴드부를 하면서 트럼펫과 바이얼린, 드럼등을 독학으로 마스터하기도 했었다. 또 작은 스켓취북을 가지고 다니며

예쁜 여자를 보면 몰래 그리기도 했었는데, 한번은 버스 안에서 어느 여대생을 그러다가 들켜서 그 여대생에게 혼이 나기도 했었다면서 못생기고 초라한 공고생이 자기를 몰래 엿보면서 그러는 것에 대해 그 여대생이 뭐가 심한 오해를 했었을 수도 있다고 딸구는 씩씩히 회고하는 것이었다.

기실 딸구는 베토벤+다빈치 같은 내면과는 정 반대로 얼굴은 기형을 겨우 면했다고 할만큼 정말 못생긴 편이었다. 가난한데다 인물도 변변찮은 딸구는 열등감 때문에 좋아하는 여자가 생겨도 말 한마디 못 걸고 속으로 애만 태우다가 꺼지다보니 미국에서 다시 만났을 때도 아직 충각이었다. 그러던 딸구가 하루는 나에게 어떤 여인 하나를 좋아하는데 중매를 서 달라는 것이었다.

반가운 생각 반 호기심 반에 누구냐고 하니까 이 여인이라고 하면서 딸구가 스켓취북을 펴서 보여주는 여인의 초상화를 보는 순간 내 눈은 화등잔이 되었다. 그 여인은 그 동네 Snob 들이면 누구나 한번 교제해 보고 싶

반가운 생각 반 호기심 반에 누구냐고 하니까 이 여인이라고 하면서 딸구가 스켓취북을 펴서 보여주는 여인은...

어하던 “공여사” 라는 과부였다. 공여사를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더니 딸구가 일하는 대학의 강당에서 열렸었던 공여사의 독창회 때 가 보고는 흠뻑 반했다고 하면서 이 초상화는 그때 그린 것이라고 했다.

나이 마흔둘의 공여사는 딸구보다 십년이나 연상이었다. 잉그리드 버그만의 딸 이사벨라 로셀리니 같은 인상에 키가 후리후리 하고 백설기처럼 눈부시게 흰 살결의 공여사는 부귀를 겸한 집안의 외동딸로 자라난 여인이었다. 서울 음대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미국에 유학까지 했었던 성악가였으나 결혼하여 낳은 딸이 아직 어리던



삽화: 엄종렬(미대 61)

삼십살에 남편이 사고로 죽는 바람에 과부가 되어 혼자살고 있었다. 아직 젊은 나이인데다가 미모에 재산도 있는 공여사인지라 접근하는 남자가 없을수 없었다. 구애를 해오는 못 남자 중에서 두 사람과 가까워지긴 했으나 마지막 단계에 가서 두 남자가 다 사고로 희생하는 바람에 무산이 돼 버렸다. 남편과 사별하고 불과 몇년 사이에 애인 둘을 잃은 공여사는 무언가 불길한 징크스를 느꼈는지 그 후 남자와 가까이 사귀는 일을 스스로 피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오늘까지 아직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과 함께 혼자 살아오고 있었다.

가난하고 못생긴데다 학벌마저도 별로 볼 게 없는 딸구가 모든 면에서 자신과는 완전히 반대쪽 끝에 서 있는 백작부인 같은 공 여사에게 장가를 들겠다고 중매를 서 달

라고 하는데 자칫 상처만 입게 될까 보아 솔직한 심정으로 말리고 싶었다. 그래서 연상이라 해도 너무 나이 차이가 나지 않느냐고 구실을 대면서 난색을 보이는 나에게 공여사가 나이 마흔 둘이면 아직 애 한둘 정도는 싫것 나을수 있는 나이라는 망직한 소리까지 해가면서 제발 한번 시도만이라고 해 봐달라고 간청하면서 매달리는 바람에 할수없이 나는 대학시절 특기였던 투쟁이 사업을 다시 개업할 수 밖에 없었다.

우선 공여사와 자주 접촉을 해야하기에, 교회를 공여사가 다니던 모 장로교회로 적을 옮겼다. 딸구와는 달리 내 자신은 공여사와 같은 서울대 출신이기에 별 어려움 없이 그 여인과 자연스레 가까워질 수 있었다. 그러다가 의외의 장애물이 있음을 발견했다. 딸구처럼 심하게 사투리를 쓰는 남전도사라는 사람이 유난히 그 공여사 모녀의 신앙적 인도자로 자처하고 나서서 잡인들의 접근을 철저히 견제하고 있는 것이었다.

솔직히 말해 속이 휘언히 들어다보이는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 한마디 파악 못을 봐야 무안을 주고 싶었지만 자칫 쥐잡다가 독만 깨겠다 싶어 입을 꺾악 다물고 이리저리 빈틈을 찾는 중에 드디어 기회가 왔다. 공여사네 집의 하수 파이프가 막혀 얼마마 땅을 파야 할 일이 생겼는

데 수리비용이 만만치가 않겠기에 공여사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그 여인의 딸로부터 입수하고 그런 일이라면 베테랑 급인 딸구를 일른 소개해 주었다.

그런데 딸구가 작업복 차림으로 도구를 챙겨 나와 함께 그 집에 도착하니 어떻게 냄새를 맡았는지 그 남전도사란 물건이 고릴라같은 체격의 젊은 꼬봉까지 돌아나 대동하고 살기된 얼굴로 문앞을 지키고 서있다가 플러밍은 이미 다른 사람을 불러 놓았으니 신경쓰지 말고 돌아가 달라고 하면서 아예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너무나 뻔한 유치한 짓거리에 욕 하고 북받치는 열기대로라면 오히려 한방 날리고 싶었지만 남전도사 뒤에 서있는 두마리 키크공 때문에 할수없이 물러나야 했는데 치미는 화를 참지못해 그여교 심한 쌍욕을 한마디 해대고 말았다. “흥, X까고 있네! 질투의 하나님의 종이 라 주인을 똑 닮았군. 관심있는 쪽이 딸쪽이유 어머니쪽이유? 설마 둘다 가지고 놀겠다는 건 아니겠지?”

결국 다음 기회를 또 기다려 보자고 하면서, 나는 보채는 딸구를 달래며 차일피일 미룰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왜 내가 그생각을 못했을까. 역시 나는 머리가 나쁘다니까!” 하면서 한달뒤 있을 동창회의 송년파티의 케이터링을 딸구가 잘 아는 화교가 하는 중국 음식점에 딸구가 직접 나서서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의 싸빙을 딸구가 맡아서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어렵사리 둘을 마주 보게 했는데, 일은 딸구 자신이 망쳐버린 것이었다. 음식을 싸빙하기 시작할 때 부터, 안절부절 초조해 하던 딸구는, 사람들과 함께 줄을 서서 차를 기다리고 있던 공여사가 저만치서부터 보이기 시작하자 호흡이 거칠어지면서 연속 마른침을 삼키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공여사가 점점 가까이 올수록 얼굴이 창백해 지면서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공여사가 바로 앞에 와서 서자 딸구는 공여사를 바로 쳐다 보지도 못하고 주변을 두리번 거리더니 드디어 국자를 내던지고 사라지는 것이었다.

“야휴우, 저런 병...”
실망이 극도에 달해서 나는 나도 모르게 탄식 섞인 욕지거리가 나왔다. 돌연한 딸구의 행동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입을 헤 벌리고 딸구의 도망치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공여사에게 나는 딸구가 내던지고 사라진 국자를 대신 들고 공여사에게 음식을 퍼줘야 했다.
<후편은 다음호에 계속>

참가 명복을 빕니다



유여백 (문리대 70)

단 한 대학에 없는 Super Computer를 한국 정부가 수입하려 할 때 유동문은 센터장(Center Director)으로 활약했고 그 후 서울대학교에 방문교수로, KIST에 연구원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는 몬타나주의 Bozeman이라는 도시에 살았다. 이곳은 바로 그 유명한 영화, River Runs through It의 촬영장이기도 했고 몬타나 주립대학이 있는 산 속 도시이다. (또한Yellow Stone National Park로 들어가는 길목이기도 하다). 이 대학에서 25년간을 근무했다.

유 동문은 영화 속 Brad Pitt이 눈부시게 보여주었던 Fly Fishing에도 일가견이 있어 찜찜이 원근 개울과 강을 찾았으며 거의 매일같이 등산도 즐겼다고 한다. 친구들에게 자기는 ‘진정한 몬타나의 사나이’라고 자랑하기도 했다.

자신의 은퇴와 딸의 줄리아드 음악대학 입학이 겹쳐 그는 사랑하는 몬타나의 산을 내려와 뉴저지의 Fort Lee에 정착했다. 여기서 지병이었던 B형 간염이 간암으로 발전하였다. 그래도 이토록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낙천적인 성격과 등산, 낚시 덕분이었다고 부인은 말한다. 독실한 기독교인이기도 한 그는 이름(여백)이 말하듯 삶에 여유를 만들며 살았음에 틀림없다. 또한 영어 이름 작명도 YearBack으로해 누구나 웃으며 기억할 수 있는 humorist였던 것 같다.



박웅민(공대 56)

해 주면 좋겠다고 설치를 요청해 왔습니다. 동창회 총무가 바쁘신 일이 있어 부득이 회장인 제가 미망인을 직접 찾아뵙고 근조기를 설치하여 드렸습니다.

김창웅 동문께서 다음날 근조기를 가져다 주시면서 유가족들이 너무나 좋아하더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주 후, 동창회 앞으로 미망인께서 감사 카드와 함께 동창회를 위해 써달라고 200불을 보내 오셨습니다. 최소한 동창회가 할 수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감사해 주셔서 오히려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장정태(사대 75) 워싱턴동창회 회장>

유여백(전문기상학과 70학번) 동문 (연락처 : 617-921-4067)
유여백 동문이 지난 8월 1일 뉴저지의 Fort Lee에서 향년 69세로 별세했다. 유가족으로는 유영희(서울 음대 72학번) 여사, 아들 Alex 그리고 딸 Alice가 있다. 그는 서울대에서 전문기상학을 전공했지만 1977년 도미해서는 워싱턴 주립대학에 입학하여 Computer Science로 석,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당시 일본과 대만에도 각각



김수행 (상대 61)

어린 시절, 그는 집이 매우 궁핍하여 고교 졸업 후 바로 취직해 돈을 벌려고 대구상업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어느 날 소문은, 서울대학에 진학하면 장학금으로 공부도 하고 생활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대학입시 공부로 전향해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했다. 과의 동아리에서 칼 막스 사상을 처음 접하고 그 사상에 매료되었으나 박정희정권의 탄압으로 대학원에서 쫓겨나 외환은행에 입사했다. 얼마 후 외환은행 런던지점에 발령을 받고 부임하게 되었다. 거기서 그는 짹짹 놀랐다. 한국에서는 말만해도 잡혀가는 칼 막스와 관련 책들이 책방에 즐비하게 진열돼 아무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도 구입할 수도 있는 것이다.

기슴 속에 다시 학구열이 불붙었으나 부인과 세 아들의 아버지로서 결정을 쉽게 내릴 수가 없었다(당시 33세). 그 때 부인이 남편을 격려했다. 자기가 대신 직업전선에 나설테니 ‘공부하세요’. 직장을 현지에서 사직하고 공부를 시작해 1982년 런던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귀국해 한신대 무역학과 교수로 임용됐으나 민주화 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1987년 해임됐다.

2년 뒤 1989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임명됐다. 그러나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서울대 경제학과 대학원 학생들이 수업 거부와 농성을 통해 ‘정치경제학 전공교수’를 영입하라고 압박했고, 기존 세력인 정통 고전 경제학 교수들은 한 통속으로 반대했다. 서울대는 드디어 고인을 서울대 교수로 임명한다는 결단을 내렸다. 김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33명 중 유일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전공자였다. 2008년 퇴임 후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로 연구와 강의에 매진해왔다.

그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완역했고,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많은 논문과 저서를 출간하였다. 동시에 그는 동구의 공산국가와 북한 일당독재에 대해서도 비판을 서슴치 않는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공산국가가 아니다. 모든 재산은 지도층에 집결되어 있고 노동자를 억압하고 그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더 나쁜 기형적 자본주의 국가라는 것이다.

그는 생전 복지 국가, 청년 실업 등에 사회, 경제 현안에 대한 소신도 밝혀왔다. 김 교수는 책 <자본론 공부>에서 “청년 실업은 청년들의 역량 강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청년을 스스로 정부에 좋은 일자리를 요구하고, 정부는 국민의 복지를 위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부고란에 올릴 소식을 기다립니다>

- 1. 고인의 성명, 사진, 소속 대학, 입학 년도
- 2. 주거 도시 (거주지)
- 3. 유가족 소식, 친구의 추모의 글 등 (연락처)
- 4. 고인의 생전 이야기, 취미 등등

상기 소식을 news@snuua.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36차 SNU Homecoming Day 참가자 모집

제36차 Homecoming Day는 10월 18일 일요일에 오전 9시부터 서울대 관악 교정 접수처에 등록합니다. 미주 동창회 회장단과 함께 서울대 총장실과 규장각을 방문하고 제공되는 도시락으로 점심을 마친 후에 참여한 동문들과 가을 오후를 보냅니다.

*참석연락처: 484-344-5500 / general@snuua.org로 해 주십시오.
*숙식연락처: 02-871-4053 / www.hoam.ac.kr/rooms/reservation.php
(숙식처가 필요하신 분은 호암교수회관으로 예약하십시오.)

인터뷰

임낙균(약대 64) 남가주 전회장 ‘I M FOUNDATION’ 비영리 재단 설립하다

I M FOUNDATION

I M FOUNDATION was established in 2015 to help young Koreans of multi-parentage. One out 20 babies born in Korea in 2013 have a foreign-born parent.

The trend to marry outside the traditional Korean ethnic boundary is increasing. In less than a generation, Korea will transpire into a multi-cultural, multi-ethnic society. The ethnic and cultural diversification is more pronounced in rural areas where young farmers are marrying foreign born brides in large numbers. Young Koreans born of these cross-cultural marriages are growing up in many parts of Korea and will change the faces of the Korean nation.

Mr. Nicholas Im, the founder of I M FOUNDATION believes in that new generations of Korean nationals, regardless of their parentage, should have an equal opportunity in building harmonious and prosperous Korea. I M Foundation, in line with his belief, will invite Korean children of diverse ethnic background to the United States to experience the ultimate multi-racial, multi-cultural society in the world. Immigrated from Korea in his late twenties, Mr. Im has experienced the benefits and pitfalls of the American society engrained with multi-racial bias and balance.

I M FOUNDATION will launch “Experience-U.S.A.” program(“e-USA”) for selected Korean children of diverse ethnic background from 2015. Ten to 15 grade school students from rural areas in Korea will be invited to stay in the foundation’s residence hall in California for a month at a time. They will experience the life in the U.S. where ethnic diversity is accepted and reckoned with. I M Foundation will pay for their trips and stay. [Further, e-USA will provide an online forum for interested Koreans to discuss future of racial issues in Korea in light of the American ways of dealing with diversity.]

Imperfect as it is, the U.S. model of dealing with ethnic diversity has evolved over centuries of real life experience. I M FOUNDATION hopes to play a role in shaping the future of Korea by providing an opportunity for young and new Koreans to experience the U.S. experience in diversity. Those Korean who will come to the U.S. under the foundation’s sponsorship will shed a new light in the coming multi-ethnic society in Korea.

한국의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방학 한 달 동안 미국을 방문케 하여 꿈에 그리던 미국에 대한 동경을 풀어준다면, 그 어린 학생들은 한국에서의 남모르는 눈길로 맺힌 마음이 부모님과 이웃과 한국생활에 대해 어느정도 동화되어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지 않을까?

임낙균 회장님은 처음 미국 Alabama에서 1978년 약대에서 공부할때, 그 당시 백인이 버스에 타면 흑인 여자가 일어나지 않아서 60년대 흑인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던 역사, 동양인으로서 많은 눈길을 받은 것이 마음에 새겨져서 그때를 회상하며 I M FOUNDATION (IRS등록)을 설립한 동기가 되었다. 또한 6.25 당시 국민학교 1년정도 밖에 못 나왔을때 박광렬 담임선생님의 가르침이 임낙균회장님을 오늘에 있게 함에 감사함을 기리며 기념하기 위함이다.

땅 밑에 강이 흐르는 Mojave River를 끼고 물문교도들이 150년 전에 마차를 타고 머문 곳, 2군데 호수도 있고 Golf장도 있는 3000 Acre 의 넓은 Silver Lakes Community Resorts Helendale (L.A.근교에서 2시간 정도 내)에 4500 SQF의 넓은 집(7 Bedroom)과 Mercedes Benz 12인승과 요트를 구입하고 내년부터 매년 10명 정도 다문화 가정 자녀 국민학생들을 초대하여 5만불 예산(전액 임회장님 자비)으로 여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6월 7일 2015년 Open House에 50여명 초대하여 계획에 대한 발표를 한 것으로 혼자하다 힘들면 무산됨을 막기위한 본인에 대한 책책이라 했다.

한국에서 서울음대 성악과 잔양 예배를 주도한 최용성 목사님의 지도 아래 다양한 하고 알찬 내용으로 영어 교육과 관광 및 요트 등 일생에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줄 준비를 다 하고 있다.

또한 1시간 정도 더 가는 Newberry Springs에 460 Acre(552,000평)에 pistachio와 대추 농장 (48975 Fairview Rd. Newberry Springs, CA 92365)은 경험 많은 정용석 농장장과 Jay Im 막내 동생이 관리하며 많은 수확을 기대해본다고 한다.

뜻있는 일을 하기까지 임낙균 회장님은 많은 사업(라서울가든(한식당), 베베리악국, 나성약국, 시민약국, 가디나 임약국, 부동산 사업(제주도, 농장, L.A.), Snow-ball Development Inc. 재단설립 등)을 해오면서 베풀 줄 아는 넉넉함이 항상 주위분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김지영 변호사(사대)후배는 임회장님은 마음의 풍족함으로 즐겁게 하고, 강신용 공인회계사(사대)는 보살피주는 후덕한 형님과 같고, 양민 남가주 총동창회 총무국장(공대)은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는 미덕이 남다르며, 임항균 동생(사대)은 5천원을 쥐도 되는 용돈을 학장시절 5만원을 주는 형님께 감탄하여 오늘까지 처럼 자세로 모신다며 웃음짓는다.

체계적이고 꼼꼼한 성격은 약사인 임경



나의 삶이 아름답고 뜻깊은 사회봉사로 환원되기를...

렬 사모님이 평생 gas를 넣을 줄 모를 정도로 외조를 하며, 외동딸 진주에게는 훈육과 사랑으로 교육하며 역시 약사로 키웠고, Marvin Choi 사위까지 약사라 약사 Family로 이름이 나왔다.

1971년 해군 약사 장교로 제대하여 1년에 5명 뽑는데 몇백명이 오는 가운데서도 시험에 합격하고 제대할 땐 약사 시험문제도 내고 답안지 채점도 해서 합격생 5명을 뽑는 실력자이기도 했다.

왜 딸 하나인가? 라는 질문에 집사람이 몸이 약해 아이를 안 낳는다해도 결혼하겠느냐해서 그래도 좋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국 노인분들이 심심풀이로 임약사 애가 있는지 없는지 내기하자 하며 놀리기에 이러다간 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까 두려워 그나마 딸 하나를 가졌다고 그 노인분들께 고마움을 느낀다.

임낙균 회장님의 I M FOUNDATION의 문화, 자선사업이 오래도록 계속할 수

〈글, 사진: 백옥자(음대 71) 조직국장〉

동창회비·광고 및 업소록비·기타 후원 동문 (2015.7 ~ 2016.6)

동문들이 보내주시는 동창회비와 각종 후원금은 미주 동창회보 발행과 미주 동창회의 원만한 운영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부디 동창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창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문들이 보내주시는 동창회비와 각종 후원금은 모두 다음의 Tax 번호로 감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Federal TIN: 13-3859506

동창회비	나성욱(문리 59) 문인일(공대 51) 박노면(사대 50) 박인수(농대 64) 유기석(문리 60) 지영환(의대 59) California 강재호(상대 57) 강정훈(미대 56) 강중경(공대 48) 강희창(공대 57) 고영순(음대 59) 권오형(사대 61) 김경욱(미대 61) 김계윤(의대 57) 김광은(음대 56) 김교복(농대 63) 김동호(농대 58) 김병호(상대 57) 김석홍(법대 59) 김순길(법대 54) 김순자(치대 57) 김창무(음대 53) 김창무(음대 53)	이성욱(문리 59) 박노면(사대 50) 박찬호(농대 63) 박취서(약대 60) 배동완(공대 65) 안병일(의대 63) 양은혁(상대 56) 양창효(상대 54) 이상구(상대 57) 이문상(공대 62) 이소희(의대 61) 이정욱(가정 71) 이정욱(공대 52) 임동호(약대 55) 임화식(치대 59) 장 준(인문 85) 정동구(공대 57) 정예현(상대 63) 정현진(간호 68) 정 황(공대 64)	조동준(의대 57) 조만연(상대 58) 최왕욱(공대 69) 한만섭(공대 47) Colorado 송요준(의대 64) 이석호(공대 66) DC 강도호(사회 81) 권오근(상대 58) 권철수(의대 68) 김영기(공대 73) 김용덕(의대 53) 김창호(법대 56) 이문환(공대 46) 장수영(공대 57) 정기순(간호 67) 홍용식(공대 51) Delaware 안세현(의대 62) Florida 정진복(의대 50)	Georgia 오경호(수의 60) Hawaii 최경윤(사대 51) Illinois 고병철(법대 55) 김규호(의대 58) 이상오(문리 61) 이시영(상대 46) 전경철(공대 55) 조봉안(법대 53) 최혜숙(의대 53) 함성택(문리 55) Maryland 오광동(공대 52) Massachusetts 김문소(수의 61) Michigan 고광국(공대 54) 김국화(공대 56) 이영모(의대 53) 최병두(의대 52) Minnesota	김영남(사대 53) 송창원(문리 53) 오제이슨(의대) 최영식(법대 59) NY & NJ 김명철(공대 60) 김성현(약대 65) 김정은(의대 77) 도아미(음대 61) 박수안(의대 59) 이능석(의대 57) 곽노섭(문리 49) 김문경(약대 61) 김석식(의대 58) 이환수(의대 55) 임충섭(미대 60) 정창동(간호 45) 조중수(공대 64) 최종진(의대 53) 민준기(공대 59) 박경원(미대 66) 박순영(법대 56)	박은규(약대 72) 박현성(약대 60) 서병선(음대 65) 송영택(농대 57) 송영순(사대 60) 안재현(상대 60) 양병자(사대 63) 유영호(의대 52) 이강홍(상대 60) 이성구(약대 56) 이영숙(간호 56) 이종환(법대 51) 이환수(의대 55) 임충섭(미대 60) 정창동(간호 45) 조중수(공대 64) 최종진(의대 53) 한태진(의대 58) 김동광(공대 62)	김용현(경영 59) 최인갑(공대 57) Oregon 김상만(음대 46) 김상순(상대 67) 한국남(공대 57) 한영준(사대 60) Pennsylvania 강영배(수의 59) 김국간(치대 64) 김정현(공대 68) 김진우(공대 62) 박형준(공대 87) 심희진(음대 90) 손재욱(가정 77) 윤경숙(문리 59) 이성숙(가정 74) 전방남(상대 73) 전화근(의대 54) 정학람(약대 56) 정홍택(상대 61) 조영호(음대 56)	지재원(사대 68) 차호순(문리 60) 최현태(문리 62) 한중희(공대 80) 황선희(공대 74) 허창기(약대 67) Tennessee 김경택(공대 75) Texas 김기준(공대 61) 김태훈(공대 57) 신달수(공대 59) 신철영(문리 64) 유 황(농대 56) 이길영(문리 59) 최성호(문리 58) Utah 김인기(문리 58) Virginia 서윤석(의대 62) 양광수(공대 73) 정원자(농대 62) Washington State 이동림(의대 52)
-------------	---	--	---	--	--	--	--	---

후원회비

김국간(치대 64) 200
김명철(공대 60) 200
김상순(상대 67) 200
서윤석(의대 62) 200
지흥민(수의 61) 200
진기주(상대 60) 200
손재욱(가정 77) 20,000
송요준(의대 64) 200
최인갑(공대 57) 200

Golf 후원금

이전구(농대 60) 500
NE Chapter 100

광고 및 업소록

민준기(공대 59) 200
김광호(문리 62) 3,000
이승훈(상대 74) 1,800

미주총동창회는 동문여러분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제13대 회기가 7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의 1년 회비는 75불입니다. 아래의 동창회 주소로 체크를 보내 주십시오. 큰 힘이 되겠습니다.

*주소: SNUAA-USA, 550 Township Line Rd. Suite100, Blue Bell, PA 19422 (문의: 484-344-5500 Ext.304)

〈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

성명 :	단과대학 및 대학원 :			입학연도 :
주소 :	전 주소 :			
업소 이름 :	업소 주소 :			
전화 :	Email :			
동창회후원금	동창회비(구독료)	업소록 광고비	일반광고비	특별후원금
☐ 연 \$200 ☐ 연 \$500 ☐ 연 \$1,000 ☐ 기타 \$	☐ \$75 (1년: 2015.7~2016.6)	☐ \$240 (2015.7~2016.6)	☐ 명함크기 (3.5"× 2") \$100 ☐ 1/6면 (5"× 4.5") \$200 ☐ 1/3면 (10"× 4.5") \$400 ☐ 1/2면 (10"× 7") \$600 ☐ 전면 (10"× 14") \$1,000 ☐ 전면 (Back 10" x14") \$1,500	☐ Brain Network 후원금 ☐ 모교 발전기금 ☐ 종신 이사회비
보낼 곳 : SNUAA-USA, 550 Township Line Rd, Suite 100, Blue Bell, PA 19422 USA Tel: 484-344-5500 Ext 304 Fax: 484-342-0222 E-mail: general@snuaa.org				
지불 방법 : Card 또는 Check / Pay to the order of 'SNUAA-USA'				
Visa() Master() American Express() 기타() 전화 484-344-5500 Ext 304 로() or Check No.:				
Card No.:		Security Code :		Expire Date:
Cardholder's Name :		Date :		
Address No. Only		Zip		Pay to order of 'SNUAA-USA'

미주 동문 업소록				광고문의는 전화 (484) 344-5500
CA 남가주	엔지니어링 컨설팅/ 건축	운송 / 유통 / 원자재	리테일러 / 보석	
공인회계사	Lee & Ro, Inc. 노명호 (공대 61) Tel.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 / 강관도매) 이병준(상대 55) Tel. (562) 692-0600 9615 S. Norwalk Blvd., #B, Santa Fe Springs, CA 90670	세계보석 김광철 (음대 59) Tel. (213) 627-0547 650 S. Hill St. #E 8 LA, CA 90014	
강동순 회계사 강동순 (법대 59) Tel. (310) 538-9315 19401 Vermont Ave. Suite C-201, Torrance, CA 90502 / kangdon@att.net	Mackone Development Inc. 양태준 (상대 56) Tel. (213) 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자동차 / 서비스	라 카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el. (818) 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CPA 김재영 공인회계사 김재영 (농대 62) Tel.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 #300, LA, CA 90010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el.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el.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신대식 공인회계사 신대식 (상대 60) Tel. (310) 329-6557 555 W. Redondo Beach Bl. #260, Gardena, CA 90248	의료 / 약국	우주개발 / 기술	비영리법인 해양 극지에너지	
Kim & Kang CPA's (김경무 강정욱 공인회계사) 김경무 (공대 69) Tel.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A, CA 90010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el. (213) 386-5002 2528 W.Olympic Blvd.,#103 LA CA 90006 drcchung@yahoo.com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el.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jc@taycoeng.com www.taycoeng.com	ISOPE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and Polar Engineers P.O. Box 189, Cupertino, California 95015-0189 Jin S Chung 정진수 Ocean, Arctic, Energy www.isope.org, jschung@isope.org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 (사대 73) Tel.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el.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www.beverlycardiology.com	Link TV Media 김원탁(공대 65) 11672 Tuxford St. Sun Valley, CA 91352 Tel. (818) 768-5494 Fax. (818)768-5040 linkboxusa@gmail.com www.linkboxusa.com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el. (213) 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el. (909) 627-09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el.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북가주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 (상대 81) Tel. (714) 530-3630 12912B roo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213-380-5060) 3600 Wilshire Blvd. #1004 LA, CA 90010	정수만 안내과 · 혈액내과 정수만(의대 66) Tel.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GA 조지아	두리 하나 결혼정보 정지선(상대 58) ‘높은 성혼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Tel. (510) 224-0760, 2910 Telegraph Ave. Ste.200 Oakland, CA 94609 www.2makes1.com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el. (213) 739-5700, (714) 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el.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변호사	동문주소록에 이메일이 11% 밖에 없습니다! 너도나도 참여하여 신속한 이메일 소통을! 〈general@snuuaa.org〉	
Jun Chang CPA 장 준 (인문대 85) Tel. (818) 772-2811, (213) 481-0100 junchangcpa@hotmail.com 19520 Nordhoff St. #16 Northridge, CA 91324 1100 Wilshire Blvd. Suite 2904 LA, CA 90017	배운범 치과 배운범 (치대 69) Tel. (213) 385-1233 3540 Wilshire Bl. LA, CA 90010 michaelyoonbae@gmail.com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el.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NV 네바다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el.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el.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ddsshp@yahoo.com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Kenneth T.HAAN & Associates, APLC 한태호 변호사 Tel. (213) 639-2900, Fax. (213) 639-2909 3699 Wilshire Blvd. Ste.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Best Care Dental 김영중 (치대 66) Tel. (702) 384-2828, (702) 480-7115 5205S Durango Dr. #103 Las Vegas, NV 89113	
		부동산 / 클리닉	OR 오레곤	
		Teamspirit Investment & Dev. Jennie Lee (간호대 69) Realtor Tel. (714) 396-0624, (949) 251-0404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jenniecee@gmail.com, jennielee.mytsr.com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el. (612) 418-5393 P.O. 7416 Beaverton, OR 97007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Tel. (909) 882-3800(B), (714) 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광고문의는 전화 (484) 344-5500	

NY / NJ (뉴욕 / 뉴저지)	MD-VA-워싱턴 DC	Fairway Asset Corporation
공인회계사	이준영 치과 이준영 (치대 74) Tel. (301) 220-2828, (301) 926-9692 6201 Greenbelt Rd. SieU-10, College Park, MD 20740 89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남옥현 (경영대 84) Tel. (301) 279-6969 414 Hungerford Dr. #203 Rockville, MD 20850
Changsoo Kim, CPA P.C. 김창수 (약대 64) Tel. (212) 760-1768, (917) 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Tel. (718) 995-7060 147-38 182nd St.Jamaica, NY 11413	PA (필라델피아)
Kenneth K. Lee CPA 이경림 (상대 64) Tel.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 (농대 69) Tel.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 (공대 61) Tel.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리테일러	Evergreen Realty 이재원 (법대 60) Tel. (201) 944-5353 242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Cottman Animal Hospital 주기목 (수의대 68) Tel. (215) 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el.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김주현 건축사무소 김주현 (공대 93) Tel. (347) 213-3516 150 S. Middle Neck Rd. #1D Great Neck, NY 11021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Tel. (703) 663-8400(O), (703) 785-8467(C) 7023 Little River Tpke, #350, Annandale, VA 22003

김주현 건축사무소 김주현 (공대 93) Tel. (347) 213-3516 150 S. Middle Neck Rd. #1D Great Neck, NY 11021	Timothy Haahs & Assoc. 손재욱 (생활과대 77) Tel. (484) 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PA 19422
--	---

원/고/모/집/합/니/다

동문들과 나누고 싶은 글을 보내주세요. 쓰는 분도 보람있고 독자들에게도 공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글을 원합니다. 장르는 시, 수필, 평론, 콩트 등의 창작품, 미술, 음악, 영화, 공연예술, 독서, 여행, 역사, 철학, 종교 등 다양합니다. 여름 휴가 에피소드도 원합니다. 그리고 살고 계신 지역의 명소를 소개해 주십시오. <독자의 광장>에 들어갈 회보에 대한 소감이나 제안을 보내주세요.

건강, 의/약학/간호학, 아동, 노인, 가정, 은퇴재정, 세무, 법률 등의 상담전문도 가능합니다. 질문에 대한 전문가들로 부터의 답변이나 칼럼도 실겠습니다. 가능한 한 글자수 2500자, 또는 단어수 700자 내로 해 주십시오(사진이 들어가는 경우, 더 짧게). 부득이한 경우 조금 더 길어도 됩니다. 이 경우 회지 지면 형편에 따라 다음호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워드나 한글로 쓰시고 첨부파일로 보내주세요. 모든 원고와 사진은 **news@snuuaa.org** 로.

*정정(訂正): 7월호 20면 결핵 치사율(Mortality Rate)을 발병률(Incidence Rate)으로 정정합니다.

■ 편집 후기 ■

동문주소록에 이메일이
11% 밖에 없습니다!
너도나도 참여하여
신속한 이메일 소통을!
〈general@snuuaa.org〉

나는 다양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왔다. 그 곳에서 봉급(俸給)을 받아서 나의 Daily breads를 해결 하면서도... 나는, 그곳을 ‘내 학교’라고 느끼거나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 곳은 단지 ‘나의 직장’일 뿐이었다. 그런데... 내가 돈을 내고서 다닌 학교는 ‘우리 학교, 나의 학교’로 나의 머릿속에서 늘 맴돌고 있으니... 참으로 Ironical 하기만 하다!

내가 다닌 大學의 동창회보가, 이곳-Philadelphia-에서 발행되게 되다니... 나도, ‘우리 학교’의 동창회보에다, 이렇게나마 ‘편집후기’라는 것을 써놓아야만 되게 되었구만.

〈이상봉 편집위원〉

부고(訃告)란의 표제 뽑기까지, 이 Section을 새로운 Project(?)로 설정하고 동문들의 슬픈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부고란 제목이 별로 마음에 안든다는 편집위원들의 반응에 여러가지 Idea가 나왔다. 역시 죽음에 대한 무경험,

오마 샤리프가 죽었다. 오래 잊혀졌던 그의 명화들이 떠 오른다. 그가 주연했던 <닥터 지바고>보다는 조연한 <아라비아의 로렌스>가 먼저 내 머리의 영상에 떠오르는 것은 내 젊은 시절, 아라비아의 사막은 처음으로 세계를 넓게 보는 창문 역할을 했기 때문이



▲ 13대 회기 첫 동창회보를 받고서...

무지함, 두려움에서 오는 숙연한 분위기가 웃으면서도 감돌았다. 결국 “명복을 빕니다”로 정해졌다. 이 때 스치는 법륜스님의 말씀, “죽는다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변화하는 것 뿐이다. 가을에 낙엽이 지고 봄에 새 잎이 나오는 것과 같이...”

다. 지바고의 소련 설원보다는 아라비아 열사의 뜨거움을 나는 더 사랑했다. 초대형 70mm대형화면에 펼쳐지는 사막. 그 위를 달리는 열차는 얼마나 왜소해 보였던가? 푸른 눈의 피터 오톨은 너무 완벽한 인간인 반면, 와일드한 오마 샤리프, 안소니 퀴에게 나는 혼을 빼앗겼었다.

됐다! 8월호 편집이 끝나니 영화를 보자, <아라비아의 로렌스>와 <닥터 지바고>. 열탕과 냉탕의 영화를 보며 나는 빨간 포도주 잔을 들어 오마 샤리프를 애도하리라.

〈주필〉

일본이나 독일, 이태리에게는 패전 70주년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모두 예전 금년이 승전70주년이다. 중국까지도 승전70주년을 기념 축하하는데, 우리에게도 승전도 패전, 그 어느 것도 아니다. (기껏해서 휴전이 다) 그래서 이듬하여 광복70년, 해방 70년이라고 한다. 얼마나 지독한 암흑의 세월이었으면, 광복이며, 얼마나 건널 수 없는 노예의 삶이었기에 해방일까?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한민족은 과연 빛을 찾았으며, 노예의 삶에서 해방된 삶을 살고 있는가?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조국 오늘의 한반도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뻐한 8월호를 바라보며 착잡한 마음 금할 길 없다.

동문님들 모두 함께 참여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웃고 있는 회보가 계속 되기를 바래본다.

〈편집인〉

서울대 미주 동창회 조직 임원단

제13대 회장단 및 임원

역대회장

박윤수(문) · 강수상(의) · 이병준(상) · 오인석(법) · 오인석(법) · 이용락(공)
오홍조(치) · 이영목(공) · 이진구(농) · 송승영(문) · 김은중(상) · 오인환(문)

명예회장 : 오인환(문)

제13대 회장: 손재욱(가정)

차기 회장

후원회 부회장

Brain Network 담당 부회장

사회봉사 담당 부회장

고문

윤상래(수의)

제영혜(가정)

하용출(문)

황선희(공)

전방남(상) · 고병은(문)

집행부 임원

사무총장

총무국장

조직국장

재무국장

차임경(가정)

심희진(음)

백옥자(음)

이성숙(가정)

사업국장

섭외국장

특별사업국장

IT개발위원장

한중희(공)

박형준(공)

허유선(가정)

김원영(미)

회보 임원

발행인

주필

편집위원장

편집/디자인

편집위원

Webmaster

손재욱(가정)

정홍택(상)

김정현(공)

승보현

김상돈(공) · 김진우(공) · 심희진(음) · 이상봉(문)
이성숙(가정) · 정덕준(상) · 정태광(공) · 이재원(사)
차임경(가정) · 황선희(공) · 허유선(가정) · 현명역(공)
각 지역 동창회 편집간사

김원영(미)

논설위원장 : 이항열(법)

논설위원

고병철(법) · 김일훈(의) · 김용현(경) · 김창수(약)
민경훈(법) · 유재풍(법) · 윤상래(수의) · 이석구(문)
이원영(정) · 이채진(문) · 장석정(법) · 정홍택(상)
조동준(의) · 차민영(의) · 최용완(공) · 하용출(사)

회칙 위원회

위원장

위원

한재은(의)

김병연(공) · 김용현(상) · 서종민(공)
이강원(공) · 이민연(법) · 함은선(음)

인선위원회

손재욱(현 회장) · 윤상래(차기회장) · 오인환(위원장, 직전회장)
+ 4명 미정

모교 발전 기금 위원회

손재욱(현 회장) · 윤상래(차기회장) · 오인환(위원장, 직전회장)
+ 4명 미정

감사

주기록(수의) · 박영철(농)

*편집 / 디자인 : 승보현

*인쇄 : TN Printing, Lehighton, PA

jayone.com

한인대표 식품기업
자연나라로 성장 하겠습니다!

Tel: 562-633-7400

대표: 이승훈 (상대74)

정평희 (공대 71, 12대 사무총장)

Paul Chung, P.E.
President

GEOTECH ENGINEERS, INC.
11890-U Old Baltimore Pike, Beltsville, MD 20705
Tel.301.937.9227 / Fax.301.937.9189
Website : www.geotechengineersinc.com
E-mail : paulchung@geotechengineersinc.com

• 서울대 동문에게는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대표이사 김혜정(82入, 문리대) www.duo.co.kr

좋은사랑 만나 결혼해 듀오

믿을 수 있는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결혼' 하면 누구나 듀오를 떠올립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한민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믿을 수 있는 듀오에서 당신의 인연을 만드세요.

뎀 듀오

• 소비자가 인정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 규모와 믿음, 서비스까지 고객이 인정하는 결혼정보회사입니다.

• 듀오만의 매칭 프로그램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매칭 프로그램으로 이상형을 찾아드립니다.

• 베테랑 커플매니저 : 전문적이고 믿을 수 있는 커플매니저가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드립니다.

• 본국 회원감독 : 본국 회원과의 만남을 원할 경우, 2만 6천명이 넘는 회원 중 가장 잘 맞는 상대를 찾아드립니다.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LA지사 30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 뉴욕지사 2050 Center Ave. Suite 540 Fort Lee, NJ 07024

문의 LA 213-383-0077 / NY 201-242-0505

Toll Free 1.800.963.4267, T. 703.658.1717, F. 703.658.3110, info@hanstravel.com
7601 Little River Tnpk., Suite 102, Annandale, VA 22003

SNU여 행동아리와 함께 한 여행

1차:2007년:지중해 크루즈 여행
2차:2008년:이집트, 나일 크루즈
3차:2009년:네팔, 인도 여행
4차:2010년:러시아, 발틱 여행
5차:2011년:페루, 브라질 여행
6차: 2012년: 발칸 반도 여행
7차: 2013년: 아프리카 사파리 여행
8차: 2014년: 베네룩스 & 노르망디 프랑스 여행
9차: 2015년: 실크로드를 따라서,우즈베키스탄

북 스페인 맛기행 - 유럽의 키친, 스페인을 맛 본다 !!!

2016년 10차 여행지인 북스페인의 맛과 예술 문화 탐방 + 산티아고 순례길
살라망카·산티아고·구겐하임 미술관이 있는 빌바오·산사바스티안·게르니카·소솔이
축제 도시 팜플로나·광기의 천재화가 살바도르 달리의 고향 휘게레스·바르셀로나
여행일자: 2016년 5월 22일 - 5월 31일 9박10일
미동부 \$3980.00/ 미중부 \$4080.00/ 미서부 \$4180.00 국제선 항공 포함.
포함사항: 국제선 항공,딜럭스 호텔,특식및와인,대형차량, 가이드,입장료 /선착순 30분

2015년 한스와 함께 하는 단독 여행

-9/21-10/4 DELUXE GREECE & TURKEY 13박14일
그리스(아테네, 고린도, 에기나 섬, 마테오라) - 터키(이스탄불, 가
파도키아, 콘야, 파묵칼레, 안탈리아,에베소)
-9/23-9/30 HOLIDAY IN CROATIA 7박8일
크로아티아(두브로브니크, 스플리트,프리트비체, 오파티아),슬로베
니아(블레드), 오스트리아(그라츠, 비엔나)
-10/1-10/11 APLS PANORAMIC TOUR 10박11일
이태리, 오스트리아,스위스,프랑스,독일
-10/7-10/16 전국일주와 홍도, 흑산도 맛여행 9박10일
서울,부여,무주구천동,전주,목포,흑산도,홍도,통영,부산,경주,
삼척,설악,남이섬-서울
-10/18-10/29 SPLENDID SICILY이태리 남부 11박12일
Palermo- Monreale, Marsala, Selinunte, Agrigento, Taormina,
Mt.Etna, Messina, Carpri, Pompeii
-10/24-10/30 THE BEST OF CHINA 6박7일
황산(黃山)과 무릉도원 장가계(張家界)
-10/31-11/5 일본 북해도 단풍과 온천 여행 5박6일
삿포로, 오타루, 하코다테, 노보리베츠, 삿포로
2016년 1/11-1/22 파타고니아 빙하 여행 11박12일
칠레(알라파테), 아르헨티나(우수아이아, 모레노 빙하,
토도글레시아, 부에노스아이레스)

I M FOUNDATION

비영리 재단

한국의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미국 초청 국민학교 방학 프로그램

서울대 동문님들의 뜻깊은 문화, 자선사업에 참여를 바랍니다.

(서울대 동문님들의 여가 선용-단체 픽업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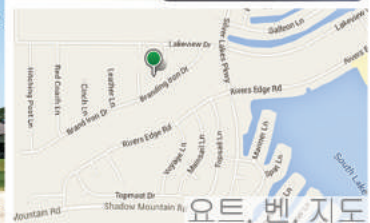
I M FOUNDATION 건물



I M FOUNDATION 실내



IMFOUNDATION 호수, Golf장



요트, 벤, 지도



IMFOUNDATION 농장

◆ I M FOUNDATION
Silver Lakes Community Resorts
14086 Branding Iron Dr. Helendale, CA 92342
연락처: 최용성 목사 Tel: 714-393-3009

대표
임낙균(약대 64)

◆ Pistachio와 대추 농장
48975 Fairview Rd
Newberry Springs, CA 92365
농장장 정용석